

김성군
변호사

160 main street
Stoneham, MA02180
781.438.6170
www.songkimlaw.com

보스톤 코리아

BOSTONKOREA.com

백영주
부동산

주택 / 콘도
비즈니스 / 건물
617.921.6979
clarapark@ownnewengland.com
ClaraPark.com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161 Harvard Avenue, Suite 4D, Allston, MA 02134

전화: 617-254-4654, 팩스: 617-254-4210

ISSN 1554-6942



트럼프 행정부가 NIH의 간접비 지원 비율을 대폭 낮춤으로 인해 매사추세츠에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대두됐다. 매사추세츠 연방지법이 이번달 말로 예정된 심리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주목되는 이유다

NIH 기금 감축시 MA주 5억5천만 달러 손실, 한인사회도 타격

생명과학계의 연구 중단, 위축 매스주에 큰 경제적 타격
생명과학 종사자 많은 한인사회 경제에도 손실 불가피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정명술 기자 =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보건원(NIH)의 '간접비' 감축을 추진하면서 매사추세츠 대학 등 연구 기관들의 보조금 손실액이 총 5억5천만

달러로 추산됐다. 이 같은 손실은 큰 경제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대로 실행될 경우 한인사회도 이를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NIH는 지난 7일 각종 대학 병원 및 연구기관의 소위 간접비(indirect costs, or overhead expense) 지원 비율을 최대 15%까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NIH는 각 연구기관의 전기요금, 실험실 장비, 실험실 렌트비용, 각종 유지 보수 인건비 등의 간접비에 대해 상당부분을 환급해왔다.

간접비의 환급 비율은 ▶▶6면으로 계속

대학 학위, 가치있나? 투자수익율로 본 가치 논쟁 뜨거워

대부분의 대학교육은 투자대비 수익율이 좋아 STEM 소득 높고, 일부 인문사회전공은 손실희를 기록 투자수익율로만 대학 분석 불가, 대학 선택시 참고

(보스톤 = 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대학 등록금이 10만 달러 대로 치솟아 학자금 대출 부담이 막중해 지면서 학생들은 대학 선택에 더욱 신중해지고 있다. 보스톤글로브는 12일 최근 회자되고 있는 투자대비 수익율(ROI) 분석도구로 대학의 가치를 분석해 뜨거운 논쟁을 일으켰다.

최근 교육연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주목받는 새로운 ROI 분석 도구에 따르면, 대학교육은 대체로 가치가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어느 대학을 다니는지보다 무엇을 전공하는지가 미래 재정적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투자수익율 즉 ROI는 기업의 투자 가치를 평가할 때 쓰이는 분석 도구 중 하나다.

▶▶8면으로 계속

신문을 독자여러분 손으로 배달해드립니다!

클릭만 하시면 바로 신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코리아는 디지털 신문 이메일을 여러분 집에 격주로 배달해드립니다. 집에서 데스크탑으로, 태블릿으로 또는 스마트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에 신문 전 페이지를 보내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기사를 원하시면 바로 클릭만 하시면 PDF 지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보고 싶으시면 위 + 버튼을 눌러 주세요. 줄이고 싶으시면 - 버튼을 눌러주세요.

K STADIUM REALTY
REAL ESTATE

President **애나 정** 부동산 전국 1위

33년의 풍부한 경험
최고의 전문가에게서 최상의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받으시기 바랍니다

주택 · 콘도 · 비즈니스 · 빌딩 · 렌트

617.780.1675

anna@kstadiumrealty.com
annajungboston@gmail.com

Residential
Commercial
Business
Investment
Property Management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경험과 전문성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책임지겠습니다

WWW.BOSTONPREMIERREALTY.COM

나원태: 617.642.3156
won@bostonpremierrealty.com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스톤 로건 공항 터미널 E에 5,000대 규모 새 주차장 건설

한국 등 국제선 이용객 급증에 따른 대응... 총 4억5천만 달러 투입 2028년 완공 목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 매스포트)이 보스톤 로건 국제공항 터미널 E에 대규모 신규 주차장을 건설한다. 총 5,000대의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주차장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됐던 확장 계획의 일부로, 항공 수요 회복에 따라 본격 추진된다.



한국 방문시 자주 이용하는 터미널 E 앞 지상 주차장은 그동안 운영이 중단됐으며, 반드시 운전자가 있어야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손님 배웅 시에는 센트럴 주차장에 주차하고 터미널 E까지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로건 공항은 현재 약 1만 6,500개의 유료 주차 공간을 운영 중이며, 이번 주차장 신설이 완료되면 총 2만 1,000개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스웨덴 건설 대기업 스칸스카(Skanska)는 올해 초 72만 5,000평방피트 규모의 주차장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며, 완공 목표는 2028년이다. 사업비는 4억 5,000만 달러다. 이번 주차장은 로건 공항 센트럴 주차장과 차량용 교량으로 연결되며 보행자용 다리를 통해 터미널 E 및 터미널 C를 잇는다. 도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는 8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매스포트는 2010년대부터 추가 주차장 건설을 계획해왔다. 당시에는 터미널 E 인근에 소규모 주차장을 짓고, 별도로 경제적인 주차 시설을 확장하는 방식이 검토됐다. 하지만 이후 매스포트는 한 곳에 모든 주차 공간을 집중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고 판단하고, 터미널 E 맞은편 지상 주차장을 대체하는 대규모 주차장 건설을 결정했다.

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국제선 터미널인 터미널 E의 이용객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매사추세츠 항만청 CEO 리치 데이비(Rich Davey)는 "지금이야말로 주차장 확장을 추진할 적기"라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환경 문제를 고려한 계획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항과 보스톤 사우스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실버라인 버스 노선을 2배 증편하고, 교외 지역을 오가는 로건 익스프레스(Logan Express) 버스 운행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내 지상 차량 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전기차로 전환해야 하며, 이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다. 해당 전환 작업은 2027년 말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는 로건 공항 이용객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2024년 로건 공항 이용객 수는 약 4,370만 명으로, 팬데믹 이전인 2019년의 역대 최고 기록(4,260

hsb@bostonkorea.com



보스톤 한인사회, 삼일절 106주년 기념식 개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편집부 = 매사추세츠 한인회와 뉴햄프셔 한인회, 로드아일랜드 한인회, 주 보스톤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삼일절 106주년 기념식이 오는 3월 1일 토요일 열린다.

될 예정이다.

2025년 기념식은 오후 2시부터 북부 보스톤 교회(224 Lowell St. Andover, MA 01810)에서 진행되며, 보스톤 한인 사회가 함께 모여 독립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이번 기념식에서는 애국선열을 기리는 국민의례와 독립선언서 낭독, 3.1절의 노래 제창 등이 진행된다. 또한, 기념사와 축사 등을 통해 삼일절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차세대 한인들에게 독립운동 정신을 심어주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삼일절 기념식은 북부 보스톤 교회와 보스톤 코리아의 협찬으로 진행된다.

bostonkorean@hotmail.com

서울설렁탕
겨울 특선메뉴

사골 떡만두국

진한 사골 국물에 정성으로 빚은 만두가 들어간 든든한 식사로
추운 겨울을 포근하게 보내세요

Take out Available
포장가능

서울설렁탕
SEOUL SOULLONGTANG

1245 Commonwealth Ave., Allston MA 02134 Tel: 617-505-6771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것이라" (이사야 43:1)

비전 교회

Grace Vision United Methodist Church

주일 예배 : 오전 10시 30분

구원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 기도의 열정이 회복되는 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제자되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교회

담임 목사 : 구정훈
아동부/youth 전도사 : 최인엽
청년부 전도사 : 남윤지

545 Moody St. Waltham, MA 02453
Tel: 910.670.4858 www.gracevisionumc.org

매스포트, 우버·리프트 공항 이용료 인상 검토

왕복 최대 15달러 부과 가능성, 공항 이용 더 비싸질 듯
로건공항, 차량 혼잡 완화 위한 요금 조정 추진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항만청(Massport, 매스포트)이 보스톤 로건국제공항에서 우버(Uber)와 리프트(Lyft) 이용 시 부과하는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매스포트는 우버 등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 시 공항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릴 때마다 3.2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우버 등의 요금에 포함되어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공항을 이용시 요금이 조금 더 비싼 이유다.

매스포트는 오는 7월부터 이 요금을 편도 5.50달러로 인상하고, 2027년 7월부터는 7.50달러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승객들은 왕복 최대 15달러의 추가 요금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매스포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요금 인상은 "승객들의 이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지상 교통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스포트의 2024회계연도 보고서에 따르면, 승차 공유 서비스의 공항 이용료만으로 1,56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도 1,370만 달러에서 14%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로건공항에서 우버·리프트 차량을 이용한 승객 수도 약 14% 증가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로건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4,300만 명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중 약 30%가 우버·리프트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로건공항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교통수단이다.

매스포트는 요금 인상으로 확보

된 재원을 공항 인프라 확충에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자원 사용처는 터미널 E 신규 주차장 건설, 보스톤 외곽에서 공항까지 연결하는 로건 익스프레스(Logan Express) 버스 개설킨, 전기차 충전기 추가 설치 등이다.

현재 논의 중인 요금 인상안에는 택시 요금 조정도 포함됐다. 현재 택시 픽업 요금은 2.25달러이지만, 2027년까지 5.50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다만 택시 하차 요금은 현재와 같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공항 주차장 요금, 리무진 픽업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버, 리프트 운전자들과 공항 이용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국내 주요 공항에서도 승차 공유 서비스에 대한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매스포트의 이번 인상안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는 게 보스톤글로브의 지적이다. 현재 로드아일랜드 T. F. 그린 국제공항은 편도 3.50달러, 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은 편도 5달러,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은 편도 5.5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매스포트 이사회는 오는 3월 회의에서 최종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hsb@bostonkorea.com



트레이더 조, 코스트코 계란 판매 제한... 조류독감 여파

미국 전역서 계란 품귀 현상... 소비자 부담 가중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대형 유통업체 트레이더 조와 코스트코가 계란 구매를 제한했다. 최근 조류독감 확산으로 공급난이 심화되면서 소비자 불편이 커지고 있다.

트레이더 조는 10일 "전국매장에서 고객 1인당 하루 한 카톤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고 밝혔다. 코스트코도 일부 매장에서 고객 1인당 최대 3판까지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 중이다.

보스톤 백베이에 위치한 트레이더 조 매장에서는 계란 진열대에 "1인당 한 판씩 구매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매장 매니저 새뮤얼 김은 "고객들이 처음에는 놀라지만, 대체로 이해하는 분위기" 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계란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다. 조류독감 확산으로 미국내 수천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되면서 계란 생산량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기준 계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37%나 급등했다.

소비자들은 갑작스러운 구매 제한 조치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일부 가정에서는 하루 한 판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계란 대체 식품을 고려하거나, 단백질 섭취를 위한 다른 식품 소비를 늘리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한다.

미국 농무부와 유통업체들은 계란 공급 안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류독감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hsb@bostonkorea.com

Pine Dental



Fitchburg, MA에서 여러분의 치아를 책임지겠습니다.

건강한 치아로 건강한 삶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394 water St.
Fitchburg, MA 01420

Phone: 978.345.7400
Pinedentalpc@gmail.com



MA 최대 병원, 사상 최대 규모 구조조정 단행

매스제너럴브리검, 2억 달러 인건비 절감 목표 경영 효율성 강화 및 재정 건전성 확보 위한 조치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 최대 병원인 매스제너럴브리검(Mass General Brigham, MGB)이 향후 2개월간 수백 명의 직원을 해고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는 병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조조정으로, 산하 12개 병원의 운영상의 어려움과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MGB는 약 8만 2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최대 민간 기업이다. 경영진은 구체적인 해고 인원을 공개하지 않았지만, 연간 최소 2억 달러(\$200million)의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병원 그룹의 급여와 복지혜택 비용의 약 2%에 해당한다. 해고는 지난 주 1차적으로 진행된 후, 오는 3월 2차로 이뤄지며 병원간의 통합이 진행되는 경우 추가적인 해고가 진행될 계획이다.

MGB의 제니퍼 스트리트(Jennifer Street) 커뮤니케이션 담당 수석 부사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전역의 의료 시스템이 겪고 있는 지속적인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향

후 2년간 2억 5천만 달러(약 3,340억 원) 규모의 예산부족이 예상된다"며 "우리는 미래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MGB는 이번 인원감축이 행정 및 관리 부문에 집중될 것이며,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일선의 의료진과 지원 인력은 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병원은 일부 직책을 통합하고 공석이 된 자리도 축소할 계획이다.

MGB의 최고경영자(CEO) 앤 클리반스키(Arne Klambauer) 박사는 내부 이메일을 통해 "만약 지금 우리의 재정 안정성을 위해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는 장래 의료 시스템의 지속적인 투자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MGB의 최근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9월까지 12개월 동안 매출 20억 달러 중 4,500만 달러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총 순이익은 2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는 탄탄한 투자자 산 덕분이었다.

전문가들은 MGB가 최소한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향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적인 안정성은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스턴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로젠블룸은 이번 해고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이기 보다는 운영상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MGB도 이번 구조조정이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히, 통합 전 주내 1,2위 병원인 매사추세츠종합병원과 브리검앤드위먼스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 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라는 것이다.

MGB 경영진은 연방 정부의 코로나19 지원금과 일회성 재정 지원 덕분에 최근 2년 동안 흑자를 기록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익보다 비용이 훨씬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재의 병원 구조이며 이는 민영 및 공공 보험사들이 늘 의료수가를 낮추도록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MGB의 병원들은 최근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해 만성적인 병상 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이로 인해 응급실 환자가 제때 병실로 이동하지 못



하는 등 운영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병원들은 환자가 퇴원할 때 한 번만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어, 장기 입원 환자가 증가할수록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결국 어느 때보다 일손이 바쁘지만 수익성은 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이다.

MGB가 보유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산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될 수 있지만, 경영진은 이자금을 의료 연구 및 병원 시설 확장 프로젝트에 사용해야 한다며 운영 자금으로 활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MGB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에 20억 달러(약 2조 6천억 원) 규모

의 확장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의료진 사이에서는 병원 운영의 기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3월, MGB는 두 병원의 34개 의료 부서를 합병한다고 발표하며 일자리 감축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후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실제로 의료진의 반발 속에서 노동조합 결성이 증가하고 있다. 2024년에는 MGB 산하 세일럼 병원(Salem Hospital)에서 노조가 결성됐고, 지난해 말에는 300명 이상의 1차 진료 의사들이 노조 결성 절차에 돌입했다.

hsb@bostonkorea.com



기쁨을 주십시오, 위험 말고.
복권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웹사이트
mass.gov/YouthGambling
에서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800-327-5050

ICON DENTAL 아이콘 덴탈

Dedicated to Your Health

Ultimate Smile Quality Dental Care

렉싱턴과 콩코드에 편리하게 위치한 아이콘 덴탈은 여러분과 가족 모두에게 적합한 맞춤형 치료 계획을 통해 미용치과, 인비절라인 투명 교정을 통한 성인 및 청소년 치열 교정 및 최신 임플란트 시술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신 기자재와 진료기술 그리고 편안하며 현대적인 진료실에서 친절한 스태프와 함께 양질의 치과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표원장 치의학박사 안형준
전화 617.957.8133

57 Bedford Street, suite 220, Lexington, MA 02420
전화 781.861.8978

97 Lowell Road, Suite A8, Concord, MA 07142
전화 978.369.0254

이메일: info@icondentalexington.com
www.icondentalexington.com

Dr. 차영주
치과 일반의

Dr. Larisa Turkenich
치과 일반의

Dr. Charles Braga
임플란트 수술 및
잇몸질환 전문의

플루, 또다시 매사추세츠서 급증 ... '쓰나미' 경고

의료 전문가들, 조류 인플루엔자 변이 위험성 우려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전역에서 플루가 이례적으로 다시 급증하고 있다. 플루 유사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 비율은 코로나 팬데믹 전인 5년 전 어느 해보다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및 매사추세츠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겨울 플루는 1월 초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보이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급증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호흡기 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전자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더욱 쉽게 전염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최근 병원을 찾는 환자의 10% 이상이 플루 증상을 보이고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이며, 이는 전형적인 플루 징후다. 그러나 플루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감염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

능성이 크다. 일반적으로 플루 시즌의 절정기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의 약 6~7%가 플루와 관련된 증상을 보인다.

유메스 우스터메디컬센터의 감염병 전문가 샌디프 주발(Sandeep Jubbal) 박사는 현재 상황을 "지금의 마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하수도 검사 데이터에 따르면, 동부 매사추세츠 지역에서 코로나 19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는 1월 초 정점을 찍은 후 급감했다. 최근까지 기승을 부렸던 노로바이러스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플루 바이러스는 여전히 증가세다.

이 현상을 '바이러스 간섭(viral interference)' 이라고 할 수 있다. 특정 바이러스가 강하게 유행하면 다른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플루가 이렇게 강력한 두 번째 급증을 보이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주발 박사는 "상대적으로 따뜻했던 1월 날씨가 플루 확산을 지연시켰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반적으로 플루는 추운 날씨에서 더 활발하게 전파된다.

이번 플루 급증은 H5N1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증가와 겹치고 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현재 가금류 및 소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며, 미국 내 인간 감염 사례는 아직 67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플루가 장기간 유행할 경우, 조류 인플루엔자가 플루 환자의 체내에서 변이를 일으켜 인간에게 더 쉽게 전염될 가능성을 높다고 지적했다.

"우리는 H5N1이 가축과 조류 사이에서 널리 퍼지는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브리감앤위먼스의 감염병 전문의 폴 색스(Paul Sax) 박사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인간에게 전파되는 능력을 획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플루 확산의 또 다른 문제는 예방 접종률 감소다. 매사추세



츠주에서는 현재까지 인구의 38%만이 플루 백신을 맞았으며, 이는 2021년 45% 이상이 접종한 것에 비해 크게 감소한 수치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2020년 이후 플루 예방접종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확산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문가들은 플루 예방 접종이 아직 늦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번 플루 급증이 수 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백신이 중증 감염을 예방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플루에 걸렸다면 항바이러

스제를 빠르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색스 박사는 감염 초기일수록 항바이러스제 치료 효과가 높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표적인 치료제로는 5일간 복용하는 타미플루(Tamiflu)가 있으며, 한 알만 복용하는 발록사비어(Baloxavir)도 있다. 다만 발록사비어는 가격이 비싸고 보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가족 중 고위험군(노약자, 면역저하자 등)이 있을 경우, 일반 용량의 절반을 복용하는 타미플루 예방 요법을 통해 감염을 막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hsb@bostonkorea.com



LET'S GET REAL ABOUT GAMBLING

문제성 도박으로 인해 당신은 삶의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당신 또는 가족 중 누군가가 도박에 빠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mass.gov/DontMissOut을 방문하여 개인, 가족, 및 커뮤니티 지원 서비스를 받으세요.

MA주 포함 22개 주, NIH 간접비 삭감 반발 트럼프 행정부 상대 소송

미 보건 연구 중심지 매사추세츠, NIH 자금 삭감에 강력 반발 공공 보건 위협하고 과학 발전 저해...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를 비롯한 22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국립보건원(NIH) 연구 기금 삭감 조치에 반발해 공동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IH 자금 지원 축소가 연구 기관들의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과학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매사추세츠주 안드레아 캄벨 법무장관은 10일 다른 주 법무장관들과 함께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에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출했다. 행정절차법은 연방 정부 기관이 규정을 만들거나 시행할 때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법이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연구 기금 정책을 변경해, 연구 기관과 공공 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캄벨 법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매사추세츠는 미국의 의료 연구의 중심지이며, 생명을 구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를 개척하는 명문 연구 기관들을 보유하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적인 조치가 경제를 약화시키고 경쟁력을 훼손하며, 공공 보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조치는 NIH의 연구비 지원 중 간접비(indirect costs) 환급을 일률적으로 15%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간접비는 연구비가 지급되는 대학·병원 등이 연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유지비, 시설 유지비, 전기료, 실험실 공간 사용료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이다. NIH는 그동안 연구 기관별로 간접비를 차등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대부분의 기관이 기존보다 훨씬 낮은 비율의 지원을 받게 된다.

매사추세츠주는 캘리포니아, 뉴욕에 이어 NIH 연구비를 세 번째로 많이 받는 지역이다. 지난해에만 약 35억 달러(\$3.5billion)를 지원받아 알츠하이머, 약물 남용, 백신 개발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됐다. 의료연구연합(United for

Medical Research)의 분석에 따르면 하버드대학교, 다나-파버 암연구소, 유메스 등 219개 기관에서 5,000개 이상의 연구 프로젝트가 진행됐으며, 이로 인해 약 3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80억 달러(\$8 billion)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하버드, MIT, BU 등 재단 운영기금이 비교적 큰 부유한 사립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등록금과 NIH의 기금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공립 연구 기관들의 운영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NIH 연구비 삭감이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테네시대학교의 로버트 켈첸 교수는 "이번 조치는 사전 공지 없이 회계연도 중반에 시행돼 연구 기관들이 적절한 대응을 할 시간조차 없다"며 "병원과 대학들이 기존 연구를 중단하고 미래 연구 계획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행정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는 NIH 연구비 삭감에 대해 "하버드, 예일, 존스홉킨스 등의 간접비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는 사실상 연구비를 빼돌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간접비가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등의 경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간접비는 연구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장비, 건물 유지 및 실험실 비용, 행정비용 등에 사용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NIH 자금 삭감 조치는 의료 연구의 세계적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미국은 오랫동안 의료 및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해왔으며, NIH를 통한 연구 지원이 그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왔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연구 환경이 악화될 경우 유능한 과학자들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연구 프로젝트가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지적이다.

hsb@bostonkorea.com

기관	간접비 축소금액
Yale University	130.1M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104.5M
Brigham And Women's Hospital	77.5M
Boston Children's Hospital	54.4M
UMass Chan Medical School	41.1M
Harvard Medical School	33.8M
Dana-Farber Cancer Institute	33.7M
Boston University Medical Campus	25.8M
Brown University	23.3M
Beth Israel Deaconess Medical Center	22.8M
Jackson Laboratory (Maine)	20.1M
Dartmouth College	17.4M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6.6M
Broad Institute	14.3M
University Of Connecticut School of Medicine/Dental	13.3M
Harvard University	13.1M
Harvard School Of Public Health	12.7M
Boston University (Charles River Campus)	12M

NIH 기금 감축시 MA주 5억5천만 달러 손실, 한인사회도 타격

▶▶1면에 이어서

기관마다 차등을 두었다. 하버드대학의 경우 간접비 사용자금의 최대 69%까지 환급을 받았다. 간접비 지원 한도를 15%로 제한했을 경우 매사추세츠는 2024년의 지원금을 바탕으로 계산했을 때 5억5천만 달러의 기금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운동 그룹의 고등교육 분석가인 제임스 머피의 추산이다.

매사추세츠 주는 캘리포니아, 뉴욕에 이어 세번째 큰 규모, 인구대비 가장 많은 기금을 지원 받는 곳이다. 의료연구연합(United for Medical Research)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백신개발, 암 치료제 등 연구 명목으로 약 35억달러를 지원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219개 연구기관이 약 5천여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3만여명의 고용과 약 80억 달러의 경제효과가 창출됐다.

이번 삭감조치가 시행되면 가장 많은 간접비가 감축되는 곳은 매스제너럴(MGH)이며 1억4천500만달러가 줄어든다. 브리감앤워먼스병원은 7천7백50만달러, 보스톤칠드런스병원은 5천4백40만달러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재정 손실은 생명을 살리는 연구 프로젝트 중단, 일자리 감소, 매사추세츠 경제 타격으로 이어지며 생명공학계에 종사자가 많은 한인사회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감축이 납세자의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백악관 쿠시 드세이는 "제기되는 우려와 달리 낭비되는 행정비용에서 다른 곳으로 사용처를 옮긴다면 진정한 과학전 연구에 더 많은 돈이 지원될 것이며 결코 연구비 자체가 감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연구자들과 지역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철회되지 않으면 매사추세츠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의 과학 연구와 바이오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매사추세츠 법무부를 비롯한 22개 주의 소송으로 지난 10일부터 집행이 중단되었지만 추후 연방법원의 심리 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아직 분명치 않다. 미 연방보스톤지법 앤젤 캘리 판사는 2월 21일 이번 소송을 심리할 예정이다.



손영권 치과

youngdentistrypc.com

진료 과목
 일반 치과
 크라운
 임플란트
 잇몸 치료
 Invisalign
 Sleep Apnea

보험
 Delta Dental Premier,
 Blue Cross Blue Shield
 Indemnity Plan

Young K Son, DMD **978.459.0594**
 674 Rogers St. Lowell, Massachusetts 01852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617.455.8073
 mwl@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J.K. 히팅 & 플러밍

30 Years Experience!

- Remodeling, Kitchen, Bathroom
- Installation Appliance(DishWasher, Disposal)
- Basement Sump Pump
- Dry Cleaner Boiler & Gas Burner
- Water Pipe & Gas Pipe Relocation
- Drain Clog Cleaning
- Central A/C Maintenance
- Small Electric Work

978.303.7000
508.517.7035
 업체관 jkeum56@gmail.com
 FULLY INSURED LICENSE, MA, 15777



NIH, 연구 간접비 지원 대폭 삭감... 미국 과학계 충격

연구 운영 비용 직격탄... 주요 대학·연구기관 반발
2023년 90억 달러 간접비 지원... 새 정책으로 40억 달러 절감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미국 국립보건원(NIH)이 연구 지원금의 '간접비(indirect costs)' 지급 비율을 대폭 삭감한다고 발표하면서 미국 과학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이 집중해 있는 보스톤 매사추세츠 지역에 상당한 영향이 우려된다.

NIH는 2월 7일 밤 발표한 성명에서 대학, 의료기관, 연구소 등에 지급하던 간접비 비율을 기존 평균 27%에서 15%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간접비는 연구 프로젝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필수적인 행정, 시설 유지, 기타 운영 비용을 포함한다. 미국내 주요 연구대학과 기관들은 50% 이상의 간접비 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번 결정이 연구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NIH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 기준 총 350억 달러의 연구 지원금 중 90억 달러가 간접비로 사용됐다. 새

로운 정책이 시행되면 연간 4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NIH의 설명이다.

NIH는 성명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을 신중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며 "간접비는 특정 연구 목표에 직접 할당하기 어려운 비용이므로 감축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월 10일부터 즉각 시행될 예정이며, 연구자들과 대학들은 큰 혼란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NIH의 결정이 미국 과학 연구의 지속 가능성에 미칠 장기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연구기관들은 정부의 연구비 축소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부 대학은 다른 재정적 지원 방안을 찾기 위해 논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단기 간내 대체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은 만큼, 과학 연구 전반에 심각한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sb@bostonkorea.com



매사추세츠, 주택난 해결 위해 2035년까지 22만 2천 가구 공급

힐리-드리스콜 행정부, 주택 비용 절감·공급 확대 전략 제시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는 심각한 주택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35년까지 22만 2천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주택 계획을 발표했다. 주택 생산을 늘리고 지역별 주택 수요를 반영해 주거 비용을 낮추겠다는 목표다.

모라 힐리 주정부는 10일 행정명령으로 설립한 '주택 자문위원회(Housing Advisory Council)'의 자문을 통해 만들어진 '매사추세츠 종합 주택 계획'이란 보고서를 공개했다.

힐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택 비용 상승의 근본 원인은 주택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행정부는 주택 문제를 미루지 않고 해결할 것이다. 이 계획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주택 생산 확대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 보존 및 개선, 노숙자 지원, 경제적 이동성 강화

등 다양한 주거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사추세츠가 2025년부터 2035년까지 연중 거주 가능한 주택을 최소 22만 2천 가구 추가 공급해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주거비를 안정시킬 수 있다.

각 지역별 주택 수요 분석도 포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규 주택 공급이 가장 절실한 지역은 매사추세츠 동부 지역으로, 특히 메리맥 밸리(Merimack Valley) 일대의 수요가 높다.

보고서에는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주정부가 진행하거나 고려 중인 전략이 언급됐다.

매사추세츠는 가장 포괄적인 주택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6만 5천 가구의 주택을 새로 공급하거나 기존 주택을 보존할 계획이다. 특히, 법안은 '추가 주거 공간(ADU, Accessory Dwelling Units)'을 허용해 이른바 '뒷마당 주택' 또는 '별채' 건설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8천~1만 가구의 추가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중교통 인근에 다세대 주택을 건설하는 MBTA 커뮤니티법을 통해 이미 3,000여 개의 신규 주택이 개발 중이며, 행정부는 MBTA 커뮤니티 촉진 기금을 통해 기반 시설 투자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반대가 이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힐리 주지사는 세금 감면 패키지에서 '주택 개발 인센티브 프로그램(HDIP)'을 확대해 주내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서 600% 주택공급을 증가시켰다.

이번 계획은 전통적인 주택 개발뿐만 아니라 ▲공실 및 노후 주택 재활용 ▲임대료 규제 해제 예정 주택 보존 ▲저소득층 및 신혼부부 대상 직접 보조금 지급 ▲퇴거·차압 방지 대책 ▲기업과의 협력 강화 등을 포함한다.

hsb@bostonkorea.com

김연진 변호사
Yeon J. Kim, Esq.

업무 분야:
이민법 / 상법 / 형사법

주요 경력

- 前 미연방 이민국 심사관
Boston 지사에서 만여건의 영주권 시민권 심사
- 前 미연방 세관 특별수사관
NY 지부 연방 범죄관련 직접 수사
- 前 미 육군 심문관

TEL: 781.932.0400 FAX: 781.932.0403
3 Baldwin Green Common, Suite 210 Woburn, MA 01801

형제 떡집

(현재 영업중)

978.343.6080
978.407.9029

210 West Main St.
Ayer, MA 01432

뉴잉글랜드 한국학교
www.ksneusa.org

1975년 개교 · 뉴잉글랜드 최대 규모 · 최고수준의 한국학교
한글교육 · 음악 · 미술 · 역사부문 교사 모집 & 등록 문의
수업시간: 토요일 9:30~2:00 (아침일찍반: 8:30~9:25)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Koreanschool.ne@gmail.com

C/o Oak Hill Middle School
130 Wheeler Rd., Newton, MA 02459

뉴타운 플러밍

PLUMBING
HEATING
AIR CONDITIONER

Repair & Service, Renovations & Installations

Plumbing repairs, Gas servicing
Hot water tank & boiler

Sink, Toilets, Faucets, Water leaks, Disposal

MA Licensed
책임 보험 가입

617.543.8106

대학 학위, 가치있나? 투자 수익율로 본 가치 논쟁 뜨거워

▶ 1면에 이어서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경제학자 프레스턴 쿠퍼가 개발한 이 ROI 분석 도구는 미국 전역의 학위 프로그램별 예상 수익률을 보여주는 데이터베이스다. 보스턴 글로브는 이를 활용해 뉴잉글랜드 지역 175개 대학의 학사 학위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대다수 전공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지만, 약 15%의 전공은 투자 대비 오히려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철학, 심리학 등 인문·사회과학 계열 전공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쿠퍼는 "오랫동안 사람들은 대학 학위가 언제나 최고의 선택이며 반드시 가치가 있다고 믿어 왔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 사실이지만, 예외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최상위 대학에서는 전공과 관계없이 대체로 긍정적인 투자 수익률이 나왔다. 예를 들어, 매사추세츠주 소재 명문 사립대인 에머스트 칼리지의 역사학 전공자들은 졸업 직후 평균 연봉 7만 5천 달러(약 1억 원)를 받고, 10년 후에는 16만 달러(약 2억 1천만 원)까지 상승했다. 쿠퍼의 분석에 따르면, 에머스트 출신 역사학 전공자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경우보다 평생 약 380만 달러의 추가 소득을 올릴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매사추세츠 주립대에서는 전공에 따라 수익률이 크게 갈렸다. 유매스(UMass) 에머스트 캠퍼스의 경우, 컴퓨터과학 전공 졸업생의 10년 후 평균 연봉은 14만 4천 달러였지만, 인류학과 철학 전공자는 각각 5만 1천 달러, 5만 7천 달러에 그쳤다.

경력 중심의 교육을 제공하는 대학들은 대체로 ROI가 높게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산학협력(Co-op)과 인턴십 프로그램이 강한 노스이스턴대와 엔디컷 칼리지는 거의 모든 전공에서 긍정적인 재정적 결과를 보였다. 이외에 창업과 비즈니스 또는 엔지니어링에 집중하는 맵슨, 벤틀리, WPI, 웨트워스공대, 올린 칼리지 등도 투자 대비 수익율이 높은 결과를 냈다.

ROI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면 혁신적인 고등 교육 재편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중 하나가 전공별 등록금 차등 적용이다.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계열 학위는 인문학보다 대학 운영 비용이 더 많이 들지만, 졸업 후 높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학이 특정 전공의 학비를 조정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버드대 강사이자 클레이튼 크리스텐슨 혁신 연구소 공동 창립자인 마이클 혼은 "대학들이 등록금을 전공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사회복지학과 같은 전공에 12만 5천 달러의 학비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 교육의 가치는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이슈다. 교육 데이터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미국의 학자금 대출 부채는 1조 7,300억 달러에 달하며, 대부분 연방 정부 대출을 통해 발생했다. 많은 부모와 학생들, 그리고 정치인들은 4년제 학위가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학 졸업생의

State	Institution	Credential type	Field of study	Earnings 1 year after completion	Earnings 10 years after completion	Return on investment (assuming on time graduation)	Return on investment (including risk of dropping out)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Area Studies	46,394	93,225	902,193	532,531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Ethnic, Cultural, Minority, Gender, and Group Studies	33,254	74,657	507,952	505,531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Computer Science	146,700	316,500	6,936,618	6,997,912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General	41,756	68,180	202,227	180,415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Cell/Cellular Biology and Anatomical Sciences	54,702	117,169	1,945,981	1,864,661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Ecology, Evolution, Systematics, and Population Biology	43,953	81,379	160,191	129,306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Neurobiology and Neuroscience	51,093	101,966	1,332,108	1,271,812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Applied Mathematics	89,115	207,918	4,414,386	4,249,055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Statistics	140,523	287,660	6,727,223	6,487,334
MA	Harvard University	Bachelor's Degree	Research and Experimental Psychology	52,875	106,373	1,320,675	1,270,018

평균 소득과 부채 규모 등을 공개하는 '안정적 고용(Gainful Employment)' 규칙을 최종 승인했다. 이 규칙은 대학이 졸업생의 실질적인 재정적 전망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강제한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규칙 시행을 미루려 하고 있으며, 대학과 로비 단체들은 시행 기한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들도 변화에 나서고 있다. 일부 대학은 취업률이 낮은 전공을 폐지하거나,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학과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잉글랜드 지역의 몇몇 대학은 최근 인문학 전공을 폐지하고, 간호학과 같은 실무 중심 학과를 추가했다.

뉴잉글랜드 칼리지(NEC)는 3년 전 간호학과를 신설해 학생들에게 졸업 전에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확정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NEC 총장 웨인 레스페란스 주니어는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학의 역할

이라고 강조했다.

경제학자 프레스턴 쿠퍼의 ROI 분석 도구는 각 대학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고 각 학과별로 수익성을 분석해 전공에 따른 다양한 수익 결과의 차이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신뢰를 얻어가고 있다. 사실 일반적인 경험으로 전공에 따른 연봉 차이를 알고 있지만 이를 데이터를 통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쿠퍼는 정부의 대학성적표 자료를 바탕으로 2015년에서 2017년에 졸업한 학생들의 평생 소득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했으며 학사학위를 받기 위해 들이는 비용과 대학을 진학하지 않았을 때 고졸자들이 받을 수 있는 소득(기회비용)을 차감해서 자료를 산출했다.

그러나 많은 학교 관계자들은 이 같은 분석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보스턴글로브에 따르면 상당수의 학교는 답변을 거부했고, 일부는 ROI분석이 오래된 8-10년 전의 자료에 근거했으며, 재정정보나 학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부유층 자녀들

은 제외했다는 점을 들어 신뢰성을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시했다. 쿠퍼도 이 같은 지적에 수긍했다.

ROI 데이터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단기적 수익률만으로 대학 전공을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하버드대 정치경제학 데이비드 데밍 교수는 "컴퓨터공학과 회계학 같은 전공은 초반 연봉이 높지만, 장기적으로 급여 상승이 정체되는 경우가 많다"며 "반면 인문학 전공자들은 경력 후반부에 소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학 교육의 가치는 단순한 연봉의 숫자만으로 측정될 수 없다. 하지만 급등하는 학비와 학자금 대출 부담을 고려할 때, ROI 분석은 학생들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https://freopp.org/roi-undergraduate/>

hsb@bostonkorea.com

다문화 선교교회

Intercultural mission Church
담임 목사: 김동섭(Sam Kim)

가족 영어예배 사역

2세, 3세들을 위한 영혼의 쉼터

57 PETERS ST, NORTH ANDOVER, MA 01845

Prescott & Son Insurance

Insurance Producer Moon Hang Lee
한인 보험 대리인 이문항

“보상 내용과 크기는”
적절하고 안전하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사업체 보험
Workers Comp.
개인 자동차 보험
상업용 자동차 보험
집 보험
건물보험

Tel: 781.325.3406
Office: 781.322.2350
Fax: 781.322.3093
mleeins@gmail.com | mlee@prescottandson.com

업무 시간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토, 일요일, 공휴일: Closed

New Nest Construction LLC

뉴네스트 건축

Residential Construction ranging from small handyman jobs to brand new construction. No job is too small.

Fully Licensed GC and HIC
Licensed Realtor at BA Property and Lifestyle Advisors

Phone:
Thomas 339.227.7797
Ruban 978.908.7390

홍삼, 암 예방과 대장암 세포 억제 효과 밝혀져

전통적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알려진 홍삼이, 최근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암 발병 예방 및 대장암세포 성장 억제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암 발병률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암 예방 및 관리에 있어 희망적인 소식으로 다가오고 있다.

홍삼 섭취, 남성 암 발병 예방 효과¹

홍삼의 암 발병을 예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국 저장성의 4개 병원에서 만성 위축성 남성 위염 환자 373명을 대상으로 11년간 장기 연구가 진행되었다. 연구 대상 환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 그룹 193명에는 매주 홍삼 1g을 부여하고, 다른 한 그룹(Placebo) 201명에게는 홍삼이 아닌 위약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3년간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후 8년간 이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 관찰했다.

추적 관찰 결과, 연구 대상자 중 Placebo 그룹 201명 중 16명(7.96%)에게 암이 발병되었으며, 홍삼 부여 그룹 193명 중 5명(2.6%)이 암에 걸려, 홍삼 부여 그룹의 암 발병률이 Placebo 그룹에 비해 약 65%가 낮았다.

홍삼 진세노사이드 Rh2 성분, 대장암세포 성장 억제 도움²

홍삼이 대장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경북대학교 연구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

경북대학교 동물생명공학과 김영욱 교수와 생명공학부 류재웅 교수 연구팀은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Rh2 성분이 대장암세포의 증식, 이동, 침투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연구팀은 Rh2 성분이 암 표적 단백질인 AXL에 직접 결합하여 암세포의 AXL 신호 전달 경로를 억제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또한 실험용 쥐를 통해 Rh2 성분이 대장암 종양 성장을 억제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홍삼이 단순한 면역력 증진에 그치지 않고, 암세포의 증식과 성장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홍삼은 면역력 증진, 피로개선, 기억력 향상 등의 다양한 효능으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널리 사랑받아왔다.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자리 잡은 홍삼이 이제는 암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잠재력으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더욱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홍삼이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를 더욱 체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와 임상 실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홍삼에 대한 깊은 연구와 과학적 검증이 확대될수록,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홍삼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1. Yun, T. K., Zheng, S., Choi, S. Y., Cai, S. R., Lee, Y. S., Liu, X. Y., Cho, K. J., & Park, K. Y. (2010). Non-organ specific preventive effect of long-term administration of Korean red ginseng extract on incidence of human cancers. *Journal of medicinal food*, 13(3), 489-494. <https://doi.org/10.1089/jmf.2009.1275>

2. Zhang, H. Y., J.-K., Huang, H., Park, S., Rwan, W., Kim, E., Jang, S., Kim, S.-Y., Choi, S., Yuan, D., Kim, S.-H., Liu, K., Dang, Z., Ryou, Z. Y., & Kim, M. C. (2022). 20 (s)-ginsenoside Rh2 inhibits colorectal cancer cell growth by suppressing the AXL signaling pathway in vitro and in vivo. *Journal of Ginseng Research*, 46(3), 395-407. <https://doi.org/10.1016/j.jgr.2021.07.004>



THE WORLD'S
No.1
GINSENG BRAND
JUNG KWAN JANG

JUNG KWAN JANG

2025

새해를
활기차게!
FIND YOUR FLOW

신년 설 프로모션 01/10/2025 - 02/02/2025

홍삼정 240g
Buy 1 Get 에브리타임 10포
Buy 2 Get 홍삼정 120g 1개



에브리타임 & 리미티드
Buy 2 (30포),
Get 에브리타임 10포



\$300 이상 구매시
활기력 10명 OR 식류 홍삼
30포 증정



홍이장군 1&2 단계
Buy 2 Get 1 Free



Burlington 점 Customer Service Desk 건너편 위치
\$100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781-238-0303

본 문서는 Jungkwan Jang 웹사이트 내상 신청 수락 진행되어 제공 소문서 조기종료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와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 품목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홍삼은 면역세포를 증가시키거나 그 기능을 조절하여 면역력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꾸준한 건강 관리와 정기적인 의료 검진 및 지정 판매처에서만 판매하며, 제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jungkwanjang.us를 방문 혹은 contact@kjgus.com으로 문의 바랍니다.



케임브리지 싱글패밀리 조닝 폐지, 6층 건물 허용 파격

매사추세츠 첫 도시 주택 공급 확대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케임브리지시가 매사추세츠 주택 및 거주 양식을 대표하는 전형적인 건축규정인 1가구 단독주택 조닝(single-family zoning)을 주내 최초로 공식 폐지했다. 11일 케임브리지 시의회는 도시 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최대 6층 건물 건설을 허용하는 새로운 토지 이용 규정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케임브리지는 주 내에서 싱글패밀리 조닝을 완전히 없앤 첫 도시가 됐다. 이는 사실상 어떤 주택 부지에서도 최대 6층 높이의 주거용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치다. 기존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에서도 4층 건물은 별도의 승인 없이 건설할 수 있으며, 전체 가구 중 20%를 저소득층을 위한 '어포더블 하우스링(Affordable Housing)'으로 제공하면 6층까지 허용된다.

이 조치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고 주택 비용이 비싼 도시 중 하나인 케임브리지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됐다. 지지자들은 이번 개혁이 향후 10년

동안 수천 개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부르한 아잠 시의원은 "이번 변화는 도시 전체가 하나의 통합된 주거 지역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과거의 주택 규제가 도시 내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면, 이번 조치는 모든 주민이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의원들이 이 같은 급진적인 변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공청회에서 몇몇 시민들은 "급격한 개발로 인해 기존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려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캐서린 주시 시의원은 "이번 조치는 개발업체의 이익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며 "결국 고급 아파트만 늘어나고, 부동산 가격과 세금, 임대료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조례는 원래 케임브리지 전역에서 6층 건물을 허용하는 안으로 출발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4층까지는 자동 허가하고, 추가 2층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허용하는 방

식으로 타협이 이뤄졌다.

케임브리지는 이미 여러 차례 주택 관련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2023년에는 저렴한 주택 건설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서는 15층까지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규 건물에 대한 최소 주차 공간 확보 요건을 폐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시의원들은 "주차 공간 의무 규정이 건설 비용을 증가시키고, 이는 곧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규정을 완화해왔다.

이번 조치는 전국적으로도 가장 급진적인 토지 이용 개혁 중 하나로 평가된다. 'YIMBY(Yes In My Back Yard)' 운동을 지지하는 단체들은 케임브리지의 변화가 다른 도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의원들은 "현재 케임브리지는 매사추세츠에서 가장 심각한 주택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데니스 시몬스 시장은 "배타적인 주택 규제는 오랫동안 도시 성장과 주거 접근성을 제한해왔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는 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머빌 그린 라인 열차 충돌... 5명 병원 이송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 조사 착수... MBTA, 승객 불편 사과

(보스톤=보스톤코리아) 한새벽 기자 = 매사추세츠주 서머빌에서 그린 라인 열차 두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매사추세츠교통공사(이하 MBTA)에 따르면, 사고는 현지 시간 2월 9일 일요일 새벽 12시 30분경 발생했다. 승객 5명을 태운 열차가 이스트 서머빌역에서 정차 중이던 무인 열차와 충돌하면서 서양쪽 열차의 차량이 한 대씩이 탈선했다.

사고 직후 MBTA는 노스스테이션과 메드퍼드/터프츠 스테이션 사이 그린 라인 E 지선의 운행을 중단하고, 대신 셔틀버스를 투입했다. MBTA 대변인 조 페사투로는 성명을 통해 "심야 시간

대에 발생한 열차 충돌 사고로 불편을 겪은 승객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부상자는 총 5명으로, 기관사 4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 치료 후 별다른 이상 없이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승객 한 명이 목 부상을 호소해 매사추세츠 종합병원(MGH)으로 이송됐다.

미국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에 이번 사고가 즉시 보고됐으며, 국가교통안전위원회(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oard, NTSB)도 조사에 착수했다. 당국은 열차 충돌 원인을 밝히기 위해 블랙박스 데이터 분석과 기관사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인뚜인디블뤼보스톤 한인성당
Saint Antoine Daveluy Korean Parish

하느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삶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찾아 나서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 미사 (Sunday)
오전 9시 30분 (English)
오전 11시 (Korean)

평일미사
화요일 /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 오후 7시 30분
매달 첫 토요일 / 오전 10시 30분

성당연락처
45 Ash St. Newton MA 02466
(617)558-2711
stadparish@gmail.com
stdaveluychurch.org
www.facebook.com/stdaveluy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살을 노래하는 교회

나사렛사람의교회
KOREAN CHURCH OF THE NAZARENE

주일예배 오전 11시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십니다.
나사렛사람의교회도
가까이 있습니다."

900 Main Street
Reading, MA 01867
보스톤 북쪽
I-95 Exit 388
(Rt. 28N)로 나와서
2 마일 왼쪽에 있습니다.
Tel. 781.439.1840

www.npeople.org
담임목사 유 검 철

**보스톤코리아
광고 모집 문의**

617.254.4654

초이스 간판

간판 및 사인
LED Sign, Channel Letter,
Truck Lettering, Banner,
Poster, Window Lettering,
Car Sign, All Types of Signs.

617.470.1083
choisigns@yahoo.com



PROUD TO BE INCLUDED IN Boston Magazine's Top Real Estate Producers and RealTrends

Jason Jeon is a distinguished Boston real estate advisor known for his dedication and exceptional achievements in the industry. What sets Jason apart in his commitment to going above and beyond for his clients, his extensive market knowledge, and his ability to turn challenging situations into successful outcomes. His approach is rooted in a strong work ethic and a genuine care for his clients' needs, making him a trusted advisor and a top producer in the industry.



Jason Jeon
Vice President

617.642.5670
Jason.Jeon@compass.com

3년 연속 보스턴 매거진 선정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 [2022, 2023 and 2024년]

메사추세츠 상위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부동산 전문가인 제이슨과 상의하시고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인 자유를 목표하고 계획하세요. 차별화된 전문성과 경험으로 모든 부동산 매매, 투자, 개발 관련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AWARDS / HONORS:

- 2022, 2023, 2024년 보스턴 매거진 최고의 부동산 에이전트로 선정
- 메사추세츠 TOP 1% 에이전트 (RealTrends Verified 2024)
- Compass 케임브리지 오피스에서 1등 개인 에이전트로 선정, 판매 및 고객 만족도에서 최고의 성과 달성
- 월스트리트 저널 '미국 베스트 부동산 프로페셔널' 리스트 등재

COMPASS

Jason Jeon is a real estate broker affiliated with Compass, a licensed real estate broker and abides by Equal Housing Opportunity laws.
*Source: MLSPin total sales 2023.

'금값'된 계란에 '에그플레이션' 우려 다시 고개

조류인플루엔자에 美 1월 계란값 한달새 15%↑...마트선 품귀현상 금리인하 기대도 줄어...전문가 "연준 2% 물가 달성하려면 인상 고려할 상황"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폭등하면서 '에그플레이션'(eggflation·계란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이 더욱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 보도와 미 노동부 소비자물가 통계 발표에 따르면 미국에서 12개월이 A등급 대란(大卵)의 평균 소매가격은 지난 1월 4.95달러로 전월 대비 15.2% 급등했다. 1년 전과 비교해선 53% 올랐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계란값이 치솟았던 지난 2023년 1월의 4.82달러도 넘어서며 사상 최고가 기록도 경신했다.

1월 계란 가격 상승률은 월간 기준으로 지난 2015년 6월 이후 가장 높았으며, 1월 가정 내 식품 물가 상승분의 3분의 2에 기여했다고 미 노동부는 설명했다.

최근 미국 내 계란 가격 상승의 배경으로는 미국에서 확산 중인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목되고 있다.

미 농무부는 작년 12월 한 달 동안 1천320만 마리의 산란계를 살처분했으며, 올해 1월 들어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내 일부 지역에서는 계란 공급처 상황에 따라 일반 식료품 매장에서 계란 품귀 현상마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와플과 햄버거, 샌드위치 등을 판매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와플하우스는 지난 3일부터 계란이 포함된 메뉴에 50센트(약 700원)를 추가 청구하기 시작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수송 트럭 내 계란이 송두리째 도난당하는 황당한 사건도 벌어졌다.

계란 가격 급등은 미국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키우는 것은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며 미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미 노동부는 이날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에너지 및 식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3.0% 상승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대로 다시 올라선 것은 지난해 6월(3.0%) 이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인플레이션 지표가 예상 밖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들어 금리 인하를 사실상 중단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에도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시장은 이날 소비자물가지표 발표 후 연준이 연내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하더라도 횡수가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 기대를 높였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 선물시장은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미 시애틀의 한 소매점 계란코너

회의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현 4.25~4.50%로 동결할 확률을 28%로, 4.00~4.25%로 한 차례 인하할 확률을 40%로 각각 반영했다.

2025년 연내 동결 내지 한 차례 이하만 이뤄질 확률은 68%로, 하루 전의 (57%)에서 상승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그룹 고문도 엑스(X·옛 트위터)에 "인플레이션이 연준이 시그널을 통해 시사해왔던 기대 수준을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더욱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며 "이런 최근 지표는 다른 경제 지표들과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연준이 만약 2% 물가상승률 목표 달성에 진정으로 전념하고 있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금리 인하 연기를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잠재적인 금리 인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그니피센트7 투자 조심해야"

(뉴욕=연합뉴스) 이지현 특파원 = 미국의 대표적인 '증시 강세론자'로 꼽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제러미 시겔 교수가 12일(현지시간) 미국의 대형 기술주 그룹을 지칭하는 '매그니피센트 7'(M7)의 주가가 비싸다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시겔 교수는 이날 미 CNBC 방송에 출연해 "우리에게 두 개의 시장이 있다"며 대형주 중심의 미국 대표지수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기업이 M7과 그 외 종목으로 나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시겔 교수는 "테슬라를 제외한 M7 주식의 주가수익비율(PER)이 30~35배에서 움직이고 있다"며 "(S&P 500 구성 종목의) 나머지 493

개 주식은 19배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 이는 매우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주가수익비율 20배가 (미 증시에서) 균형 수준이라고 얘기해왔다"며 "해당 업종(M7)이 다음 강세장에서도 주도주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나는 M7 투자에 신중할 것"이라며 "대신 주가수익비율이 19배 정도인 다른 종목들을 좋아한다"라고 말했다.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아마존, 애플,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등 7종목을 지칭하는 M7은 인공지능(AI) 열풍에 힘입어 지난 2년여간 미 증시 강세장을 주도해왔다.

충청 의료이비인후과
www.junyo.co.kr
www.junyo.co.kr
성모안과

소중한눈!!! 정기검진하시나요?

휴람이 경험 많고 정직한 안과에서
당신의 소중한 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원장 박성진
▪ 20여년 수술집도
▪ 2만여건이상 수술

휴람 - 좋은사람들 성모안과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1. 휴람 안 종합검진 (소요시간 30분 ~ 1시간 30분)**
 - 1) 기본 안검진 10만원
시력검사(나안/안경차방/타각적굴절/노안) / 세극등 현미경 / 안압 / 안저촬영 / 백내장, 녹내장 유무파악
 - 2) 프리미엄 안검진 25만원
각막부터 시신경까지 구석구석하는 안정밀검사로 40대 이상부터 2년마다 추천합니다.
기본 안검진 + 녹내장 / 백내장 / 안구건조증 / 시신경망막 / 기타 필요검사
- 2. 2030 라식라섹 (150만원 ~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불편한 안경과 렌즈에서 해방
- 3. 4050 노안라섹 (노안 + 백내장 해결) (180만원 : 정밀검사비용 포함)**
 - 노안이 와도 돋보기와 안경도 빛는 꽃중년 라섹
- 4.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수술 (429만원 : 단안)**
 - 노안 + 난시 + 백내장 동시 해결

* 상기 비용은 개인별 눈상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시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충청 의료이비인후과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무료전화(Call for Free)
1-844-DO HURAM (1-844-364-8726)
010-3469-4040 | ID: huramkorea
huram@huram.kr | www.huramkorea.com

고인물 빼는 머스크...연방정부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인사관리처 간부, 전면적 구조조정 개시 알리는 이메일 발송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선 공약이었던 '고인물 빼기'를 본격화했다.

1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연방정부의 인사담당부처인 인사관리처(OPM) 간부는 이날 직원들에게 전면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됐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OPM은 정부효율부(DOGE) 수장을 맡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장악한 정부 기관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각 부처와 정부기관에 대해 머스크 CEO가 이끄는 DOGE와 협력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준비하라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특히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에 연방정부 인력 규모를 효율성 개선과 감원을 통해 줄일 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백악관은 연방정부의 예산을 30~40% 정도 삭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 삭감은 대부분 구조조정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다. 백악관 관계자들은 구조조정 규모에 대해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변경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조조정은 부처에 따라 규모가 달라질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등 트럼프 행정부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수행할 부처는 구조조정의 예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OPM에 연방정부의 채용업무를 관장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각 정부 기관에서 직원 4명이 그만둘 때마다 1명만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다.

연방정부의 향후 인력 규모를 결정할 권한이 머스크의 손에 쥐어진 셈이다.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이익단체는 OPM 청사 앞에서 연일 머스크와 DOGE를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한편 머스크는 전날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국민은 지난해



'고인물 빼기' 구호를 들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대선 때 대대적인 정부개혁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이제 그것이 이뤄지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기간 트럼프 대통령은 '고인물 빼기'(Drain the Swamp)를 선거 구호로 사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공무원들을 '고인물'이나 '적폐'를 의미하는 '늪'(Swamp)이라고 표현하거나, 연방 정부 내 기득권 집단을 의미하는 '딥스테이트'(Deep State)로 부르면서 적대감을 보였다.

머스크도 DOGE 수장으로 임명되

기 전 개수대를 들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백악관 내부 배경에 합성한 이미지를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하면서 '개수대를 설치하자'(Let that sink in)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고인물을 흘려보내겠다는 의미다. koman@yna.co.kr

당신과 가족을 위한 정신건강 관리 기관, 바로 곁에 있습니다.

소아우울증을 위한 도움이 내 곁에 | 🔍

정신건강 위기 관리 기관, 가까운 곳에서 지금 바로 이용하세요.

위기에 처한 지금 당장 도움이 필요하세요?

가까운 행동건강센터를 찾아보세요.

mass.gov/CBHC



FT "부산서 젊은이 엑소더스"...인구소멸 위기 조명

한국고용정보원 부산을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도시로 평가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급격한 인구 유출을 겪는 부산광역시 시의 위기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이 매체는 1995년 이후 부산 인구가 60만명 줄어든 것과 65세 노인 인구 비율이 24%에 달하는 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이 부산을 '소멸위험단계'에 들어선 도시로 평가한 것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20세기 대부분 시기에 번창하는 무역과 산업의 중심지였던 부산은 이제 젊은 세대 엑소더스(탈출)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국가 경제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역 불균형을 주요 원인으로 짚었다.

신문은 "한국 경제는 점점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과 같이 더 정교한 제품 생산과 수출에서 동력을 얻게 됐

고 대학과 연구기관도 숙련 노동자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이전했다"며 "삼성과 LG 등 선두기업의 탄생지이면서도 한국 100대 기업 중 본사를 부산에 둔 기업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원은 중국과 경쟁 속에 한국 산업과 경제의 중앙집권화는 더 심해졌다면서 이는 부산을 비롯한 지역 경제 중심지의 '연쇄 쇠퇴'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전국의 젊은 세대를 흡수하는 서울에서조차 젊은이들은 별이 가 양호한 일자리와 교육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에 결혼과 육아를 포기한다면서, 차이가 있다면 부산의 노동 연령 인구의 감소가 훨씬 더 급격하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경제학자들은 이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인구 위기에 따른 영향을 완화



광안대교

할 만큼 높지도 않은 만큼 지역 경제 쇠퇴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은행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1.6~1.7%다.

FT는 또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여파에 정신이 분산된 한국 정계는 악화하는 경제를 뿌리까지 구조조정할 역량이 있다는 징후

를 거의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cherora@yna.co.kr

마트서 태연하게 낚선 흥기 구입한 초등학생 살해 교사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대전 초등학생을 살해한 교사가 범행에 사용할 흥기를 구입하면서 점원에 대해 잘 드는 칼이 있는지 태연하게 물어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교사 명모(40대) 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10일 오후 1시 30분께 대전의 한 주방용품점에 들려 점원에게 "잘 드는 칼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다

는 진술을 확보했다.

점원이 칼 용도를 묻자 명씨는 '주방에서 사용할 용도'라는 취지의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이 100% 계획범죄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 같은 명씨 진술이 경찰의 계획범죄 입증에 중요하게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전직 일선 경찰서 형사과장 출신인 A씨는 "칼을 구입할 목적 자체가

일단 범행을 시도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인데, 교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범행을 더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으로 계획적인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날카로운 칼을 찾았다는 것은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범행 도구를 구입했다는 것으로, 심신미약 상태나 정신 이상에 의한 행동이라기보다는 사리 분

별이 충분히 가능한 사람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5시 50분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40대 교사가 김하늘 양을 살해하고 자해해 다친 채 발견됐다.

교사는 수술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고 수술을 마친 뒤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당일 돌봄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흥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교사는 당일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동료에게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외출해 흥기를 구입해 학교로 돌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명씨가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범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swan@yna.co.kr



"전문적인 치료,
진실된 치료,
진심을 담은 치료,
Smart Dental이
추구합니다"



JEONG LEE, D.M.D., MMSc., PhD.

원장 이정숙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1990년 졸업
-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박사학위 2000년 취득
- 서울부부치과원장 1994년-2006년
- Tufts School of Dental Medicine 2009년 졸업
- Harvard School of Dental Medicine 보철과 2012년 졸업

SMART DENTAL

452 Pleasant St., Malden MA 02148

Office: 781 322 4914

Fax: 781 605 3797

Email: maldensmartdental@gmail.com



Malden Center역에서
걸어서 10분, 차로 5분 거리

H MART

BURLINGTON/QUINCY WEEKLY SALE FEB. 14th - FEB. 20th, 2025

Follow us @hmartofficial H MART MA



MARSHMALLOW CHOCOLATE CAKE

With its chewy marshmallow exterior and moist chocolate cake inside, it's the perfect treat to share your heart!
H 마트와 함께 만든 마시멜로 초코 케이크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세요!



Premium Fuji Apple 프리미엄 후지사과 LB \$1.49	Garlic 마늘 5 PCS/PKG \$1.99	Kabocha 단호박 LB \$0.99	Korean Pear 한국산 배 PRODUCT OF KOREA BOX \$29.99	Korean Sweet Potato 고구마 LB \$2.49
Green Seedless Grape 씨없는 청포도 LB \$2.99	Florida Orri Mandarin 플로리다 오리 만다린 LB \$2.99	Ginger 생강 LB \$2.99	Navel Orange 네이블 오렌지 3\$2 FOR EA	PULMUONE Tofu 풀무원 두부 SOFT/FIRM/SILKEN 16 OZ/PKG FOR \$3.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Top Blade Steak 생소 부채살 (낙엽살 스테이크) LB \$10.99	Fresh Ox Tail 생소 꼬리 LB \$14.99
Fresh Bone-in Beef Shank 생 뼈있는 소 아롱사태 LB \$7.99	Fresh Pork CT Butt 생 돼지목살 (수육용) CHUNK/LB \$6.99
Fresh Boneless Chicken Breast 생 뼈없는 닭가슴살 LB \$3.49	Marinated Pork Single Belly 양념 돼지 삼겹살 LB \$6.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Salmon Steak 연어 스테이크 LB \$7.99	Fresh Scallop 조개 관자 10-20'S/LB \$11.99
RI WANG Frozen Fish Ball 리왕 피쉬볼 ALL VARIETIES LB \$4.99	Head-on Shrimp 머리새우 20-30'S LB \$4.99
Frozen Octopus 문어 PRODUCT OF SPAIN LB \$5.99	Frozen Yellowtail 방어 PRODUCT OF KOREA LB \$1.99

SMART CARD MEMBER ONLY

OTTOGI Jin Jambong Spicy Seafood Noodles 오뚜기 진짬뽕 \$7.99 4.58 OZ X 4 EA/PKG	KWANG CHEON Green Tea Seaweed 광천 청파래 녹차김 선물세트 \$12.99 GREEN LAVER 0.71 OZ X 10 EA/BOX
PULMUONE Grilled Mackerel 풀무원 직화고등어구이 \$5.99 3 OZ	KYUNG BOK KUNG KOREAN BBQ Galbi-tang Beef Short Rib Soup 경복궁 갈비탕 \$9.99 19.4 OZ

HARU HARU Medium Grain Milled Rice 하루하루 쌀 15 LB \$14.99	RAW NATURE Cooked Brown Rice 자연담은 자연미 현미밥 7.4 OZ X 12 BOWLS/PKG \$12.99	NONGSHIM Shin Ramyun Toomba Stir Fry Style Noodles 농심 신라면 톰바 \$6.99 4.83 OZ X 4 EA/PKG	CHUNG JUNGONE O'Food Original Seasoned Soybean Paste Mild Ssamjang 청정원 오푸드 순창 고소하고 담백한 쌈장 \$5.99 2.2 LB	PULMUONE Jjamppong Noodle Soup Kit 풀무원 직화 짬뽕 12.8 OZ \$5.99
FOODCELL Wide Vermicelli Noodles 푸드셀 납작당면 1 LB \$2.99	HAIOREUM GOMPYO Wheat Flour 곰포 공포 CO-BRAND 밀가루 5.5 LB \$3.99	YOODONG Canned Bai-top Shell (Whelk) 유동 자연산 클뱅이 캔 14.1 OZ \$7.99	HAITAI Matdongsan Peanuts Crunch Snack 해태 맛동산 \$3.99 10.58 OZ	HAITAI Homerun Ball Snack 해태 홈런볼 14.6 OZ (9 EA/BOX) \$12.99
MAGNOLIA Premium Tropical Ube Flavor Ice Cream 매그놀리아 프리미엄 트로피칼 우베맛 아이스크림 48 FL OZ \$9.99	WOONGJIN Morning Rice Drink 웅진 아침햇살 50.72 FL OZ \$3.99	HELLO HOME 3D Low Pot 헬로홈 에코텍 시리즈 전골냄비 IVORY/9.4 INCH \$37.99 \$29.99 EA	Peanuts Flower Edition Slim Tissue 피너츠 플라워 에디션 슬림티슈 60 SHEETS \$2.99 \$2.29 ALL VARIETIES EA	KOTO Sake Set for 4 코토 4인 사케 세트 APRICOT FLOWER BOTTLE (300 mL) + 4 CUPS (50 mL) SET \$15.99 \$11.99

JINGA SIDE DISHES

Want authentic Korean? Always ready to eat. Always the highest quality!

한국전통의 맛이 그리울 때는 진가 모듬반찬을 드셔보세요

CUSTOMER SERVICE
T. 877.427.7386 Customer_care@hmart.com
For events, coupons & exclusive deals, subscribe at www.hmart.com, and Visit our Facebook, Twitter, Pinterest & Instagram to stay up to date on special offers!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This ad only pertains to our our Burlington locations. During the editing process, there may be mistypes/misprints. Each location may be subject to limited availability, as well as their sale prices. Some products may be sold out. If a product is not listed as a boxed sale item, it cannot be purchased as a boxed sale item. All H Mart locations accept all major credit cards.

음식점으로 성공창업을 원하신다면 지금 연락주세요!
JOIN MARKET EATERY FOOD HALL! CONTACT: me@hmart.com
Have a great idea for a restaurant, we have the perfect busy location for you.



PREMIER REALTY GROUP
REAL ESTATE

 이사 이제봉 DIRECTOR 781.654.5281 jee@bostonpremierrealty.com	 마케팅디렉터 스티브 권 MARKETING DIRECTOR 508.326.6285 stev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캐시 송 BRANCH MANAGER of Hadley Branch 414.313.4165 kellysong@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크리스틴 손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773.968.2651 kristine@bostonpremierrealty.com	 매니저 신보경 BRANCH MANAGER of Lexington Branch 508.361.6064 boahn@bostonpremierrealty.com
---	---	--	---	--



대표 나원태
 PRESIDENT
 617.642.3156
 wcn@bostonpremierrealty.com

TOP 에이전트가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Residential / Commercial / Business / Investment / Property Management



	 김지민 978.494.2043 jim@bostonpremierrealty.com	 노미연 617.447.0501 mi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주 617.780.7639 ju@bostonpremierrealty.com	 장지희 978.866.3248 jheeh@bostonpremierrealty.com	 이진우 401.538.3397 ryee@bostonpremierrealty.com
 박소연 617.338.078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그레이스 김 617.455.7710 grace@bostonpremierrealty.com	 한수연 617.528.6973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민수연 253.503.0347 soyeon@bostonpremierrealty.com	 박지희 413.507.1400 jheeh@bostonpremierrealty.com	 손정태 617.913.3348 jungtae@bostonpremierrealty.com
 최진진 617.877.0387 jinjin@bostonpremierrealty.com	 이정순 781.836.3412 soon@bostonpremierrealty.com	 한혜숙 781.959.1214 heesook@bostonpremierrealty.com	 장혜정 617.915.1162 jung@bostonpremierrealty.com	 이중국 617.543.0728 jung@bostonpremierrealty.com	 박민희 404.641.9192 minhee@bostonpremierrealty.com
 Tammy Woolfolk 917.294.5810 tammy@bostonpremierrealty.com	 Nancy Wang 617.230.8482 nancy@bostonpremierrealty.com	 Shirley Zhao 857.531.0314 shirley@bostonpremierrealty.com	 Vivian Ye 617.936.2713 vivian@bostonpremierrealty.com	 Xian Dole 413.527.8979 xian@bostonpremierrealty.com	 Lu Jiong 248.449.0117 jiong@bostonpremierrealty.com
 John Tran 617.406.9652 john@bostonpremierrealty.com	 Rebecca Phu 617.833.1888 rebecca@bostonpremierrealty.com	 Michael Sorra 978.873.0076 msorra@bostonpremierrealty.com	 Linda Tu 857.210.8830 linda@bostonpremierrealty.com	 Jun Wang 646.278.2623 jun@bostonpremierrealty.com	 Lily Wang 617.936.7212 lily@bostonpremierrealty.com
 Crystal Wei 413.308.0255 crystal@bostonpremierrealty.com	 정혜민 박 201.446.8995 hyemin@bostonpremierrealty.com	 재미크 김 781.596.0409 mik@bostonpremierrealty.com	 이신현 857.260.0434 shin@bostonpremierrealty.com	 Mini Belanger 413.257.1586 mini@bostonpremierrealty.com	



홈 리노베이션

배관, 전기, 난방

홈 익스텐션, 핸디잡

커머셜 시공



WE BUILD FOR YOU

좋은 사람들이 모여 모든 프로젝트에 항상 진심으로 임하고, 다양한 레벨의 맞추어진 인력이 투입되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를 포함한 전문 인력을 통해 공정 관리를 합니다. 고객님의 행복을 위해 저희의 모든 능력을 기여 할 것입니다.

PREMIER WORKS

617.838.4980

support@bostonpworks.com

맛김 22% · 김치 18% ↑ ...가공식품 물가상승률 1년 만에 최고

식품업체 올해 들어 줄줄이 가격 인상

'빵 · 커피 등 출고가 인상 영향...환율 상승 시차두고 더 반영'

(세종=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식품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하면서 가공식품 물가가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13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와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가공식품 물가지수는 122.03(2020년=100)으로 작년 동월보다 2.7%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1월(3.2%)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상회했다.

가공식품 물가상승률은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2.0% 이하로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으나 부쩍 높아졌다.

지난달 가공식품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른 품목은 오징어채(22.9%)였다.

맛김(22.1%), 김치(17.5%), 시리얼(14.7%), 유산균(13.0%), 초콜릿(1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요리할 때 쓰는 조미료와 유지류인 참기름(8.9%), 간장(8.8%), 식용유(7.8%) 등은 7~8%대 상승률을 보였다.

밀가루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도 일제히 가격이 올랐다. 비스킷(7.0%), 케이크(3.3%), 빵(3.2%) 등이 대표적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물가 기여도가 큰 빵, 커피, 김치, 비스킷 등의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전체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식품업체들은 올해 들어 제품 가격을 대대적으로 올리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지난달 1일 포카리스웨트, 데미소다 등 주요 제품 가격을 100원 올렸고 대상은 지난달 16일부터 마요네즈와 후추, 드레싱 등 소스류 가격을 평균 19.1% 인상했다.

SPC 파리바게트는 지난 10일부터 빵 9종과 케이크 25종 가격을 평균 5.9% 인상한다고 밝혔다.

롯데월드푸드는 오는 17일부터 초코 빼빼로를 200원 올리는 등 26종 가격을 평균 9.5% 인상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맛김을 고르고 있는 시민

식품업계는 원재료 가격 상승과 물류비 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맛김 원재료인 김 원초 가격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김치에 쓰이는 배추 가격도 작황 부진으로 치솟았다. 기후변화로 인해 초콜릿 원료인 코코아, 커피 원두의 국제 가격도

급등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앞으로 가공식품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식재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식품업체로서는 원가 압박이 커지는 셈이다.

정부는 식품업계와의 간담회를 통

해 물가안정 정책 기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주요 식품 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원/달러 환율 상승이 1월 가공식품 물가에도 일부 영향을 미쳤으나 앞으로 시차를 두고 더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sj@yna.co.kr

'눈물의 이산상봉' 면회소까지...금강산 남측시설 모두 사라져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완공 17년 만에 철거...5차례 상봉장으로 쓰여...2019년 김정은 "씩 들어내라" 지시 뒤 남측 시설 줄줄이 철거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정부가 13일 북한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있다고 밝힌 이산가족면회소는

금강산에 남아있는 사실상 마지막 남측 시설이다.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

원장 지시로 주요 시설을 하나둘씩 철거하던 이산가족상봉장으로 쓰였던 면회소 건물까지 뜯어내고 있

는 것이다.

이산가족면회소는 2008년 7월 지하 1층, 지상 12층 규모로 금강산 관광지구 내 위치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들어섰다.

2003년 11월 적십자회담에서 건립이 합의되고 2005년 8월 첫 삽을 뜨지 3년 만이었다. 그러나 완공 직후 고(故) 박왕자씨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식 개소도 하지 못하는 불운을 겪었다.

이후 2009년 9월 · 2010년 10월 · 2014년 2월 · 2015년 10월 · 2018년 8월 등 5차례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이곳에서 열렸다. 이때도 1~2층만 임시로 사용됐다.

'눈물의 상봉' 장소로 쓰였던 이산가족면회소는 4천여명의 실향민에게 혈육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으나 2018년 이후엔 더는 운영되지 못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남측을 외면하기 시작했고 그해 10월 금강산을 찾아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을 싹 들어내도록 하라"고 지

시했다.

북한은 2022년부터 현대아산 소유의 해금강 호텔과 금강산 문화회관, 온정각 동관 · 서관, 구룡빌리지 등을 철거 또는 해체했다.

지난해 4월에는 우리 정부 자산인 소방서를 없앴고 가장 최근에 완공한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면회소마저 철거를 시작한 것으로, 완료되면 금강산 지구에는 남측 시설이 사실상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

김 위원장은 2019년 당시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없애고 새로운 문화관광지구를 꾸려야 한다고 지시했지만, 아직 북한이 새로운 시설을 건립하는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산인 이산가족면회소 일방 철거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관련된 법적 조치, 국제사회와의 협력 등 필요한 조치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마지막 정부 시설인 이산가족면회소 철거를 시작했다고 통일부가 13일 밝혔다. 사진은 통일부가 2019년 10월 29일 언론에 공개한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시설 사진. 2025.2.13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OUR LOWEST PRICE!
가격을 확! 내립니다

FEB. 13TH - FEB. 20TH, 2025



H 海底捞调味料

HAIDILAO Hot Pot Set

**하디라오
훅귀세트**

~~\$31.99~~

\$19.99



DUAL POT + CHOPSTICK (2 PAIRS) +
 HOT POT SOUP BASE (4 PKG) +
 SWEET POTATO VERMICELLI (WIDE/REGULAR)
 + DIPPING SAUCE (6 PKG) / 69.13 OZ/SET

Sahmyook Foods

**SAHMYOOK
Black Bean Soy Milk**

삼육 검은 콩 두유

~~\$17.99~~

\$11.99



6.42 FL OZ
 X 20 EA/BOX

BURLINGTON & QUINCY STORES ONLY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H MART**

Burlington 3 Old Concord Rd, Burlington, MA 01803
Quincy 101 Falls Blvd., Quincy, MA 02169
Somerville 240 Elm St, Somerville, Ma 02144

Cambridge 581 Massachusetts Ave, Cambridge, MA 02139
Brookline 1028 Beacon St, Brookline, MA 02446

'미키 17' 봉준호 "인간냄새 나는 SF...노동자·정치 풍자 담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박원희 기자 = "인간 냄새로 가득한 인간적인 SF 영화입니다. 평범하고 힘 없고 어찌 보면 불쌍한 한 청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봉준호 감독은 20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영화 '미키 17' 푸티지 시사회(일부 장면을 공개하는 시사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생생하게 겪을, 현실감 있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SF물"이라고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주연 배우 로버트 패틴슨도 참석했다. 그는 '미키 17' 홍보 차 전날 입국해 관련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봉 감독의 첫 할리우드 영화인 '미키 17'은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을 바탕으로,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패틴슨이 임무 수행 중 죽을 때마다 폐기처분 됐다가 복제 인간으로 되살아나는 주인공 미키 역을 맡았다. 17번째 미키가 죽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18번째 미키를 맞닥뜨리며 이야기가 전개된다.

봉 감독은 원작의 과학 기술 묘사 대신 '땀 냄새'와 '발 냄새'가 나는 노동 계층의 이야기로 영화를 채웠다고 설명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챗 GPT를 보면서 대화하리라곤 여러분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앞으로 2년, 3년 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는 것이죠. '미키 17'은 조금은 공상과학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분명 겪을 일이 담겼어요."

봉 감독은 나날이 발전하는 과학기술로 인해 자신 역시 "인공지능(AI)이 쓸 수 없는 시나리오를 어떻게 쓸 수 있을지 매일 고민한다"면서 "AI가 절대 쓰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매년 한 편씩 써내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도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미키 17' 푸티지 영상에는 사람들이 미키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거나 괴생명체의 공격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아 하거나 미키의 신체가 실험용으로 쓰이는 장면 등이 담겼다. 미키가 지구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빛을 지고 복제인간인 '익스펜더블'에 지원하는 과정도 나온다. 비극적인 이야기를 해학으로 풀어내는 '봉준호 표' 블랙 코미디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봉 감독은 "극한에 처해 있는 노동자 계층이다 보니 (작품에) 계급 문제가 스며들 수 있지만, 거창하게 계급 간의 투쟁을 다룬다는 식의 정치적인 것발을 들고 있진 않다"면서도 "(이전에 선보인 SF 작품인) '괴물', '설국열차', '옥자'처럼 '미키 17'에도 정치적인 풍자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악역을 해본 적 없다

는 마크 러팔로가 새로운 유형의 독재자로 나온다"고 귀띔했다.

그는 이번 영화를 연출하며 만족한 지점에 대해서는 "25년 감독 생활 최초로 사랑 이야기가 나온다"며 "멜로 영화라고 말하기는 뻔뻔스러울 것 같지만 사랑 장면이 있다. 그게 제일 뿌듯했다"고 떠올렸다.

패틴슨은 "아주 빨리 재미있게 읽은 미친(crazy) 시나리오지만, 미키가 왜 그렇게 되는지를 살펴보면 복잡해지더라"며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보면 멍청한 점도 있는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무리 가르쳐도 교육되지 않았던 자기 반려견에서 영감을 얻어 미키 캐릭터를 소화했다고 한다.

패틴슨은 "어떤 벌을 내려도 바뀌지 않았던 제 반려견처럼, 미키 역시 17번을 죽어서야 '삶을 다르게 살아야 했다'라고 깨닫는다"며 웃었다.

봉 감독은 그간 '옥자', '설국열차' 등을 통해 크리스 에번스, 틸다 스윈턴, 제이크 질렌할, 옥타비아 스펜서 등 다양한 외국 배우와 협업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패틴슨과 호흡을 맞췄다. '미키 17'에는 패틴슨 외에도 스티븐 연, 나오미 아키에, 토니 콜렛 등이 출연한다.

봉 감독은 패틴슨이 '굿타임'(2018), '라이트하우스'(2019) 등 미국 독립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줬을 때부터 주목했다고 말했다.

그는 "멍청하고 불쌍한 미키 17과 예측불가능하면서도 기괴한 카리스마를 뽐내는데 미키 18을 모두 소화해야 해 사실상 1인 2역인 셈"이라며 "두 역할을 다 맡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생각했고

처음부터 패틴슨이 떠올라 캐스팅 과정이 순조로웠다"고 했다.

패틴슨은 "스타워즈' 시리즈와 비슷한, 거대한 스케일의 영화에서 가볍고 유머러스한 장면을 보여주는 SF물은 흔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미키 17'은 봉 감독님의 용감한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PGA 골프 레슨

PGA Class A 멤버 티칭 프로가 Pro 지망생, 초중고 골프선수 처음 배우는 초보부터 상급자까지 맞춤형 레슨, 전문 골프 레슨합니다.

Young PGA Professional 617.458.2733

보스톤 코리아 인터넷 신문 카톡으로 받아보세요

위의 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고 카카오톡 채널 친구신청을 해주세요. 인터넷 신문 각종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동반자 **온라인 주문과 예약이 가능한 컴퓨터**

신뢰할 수 있는 크레딧 카드 머천트 서비스 제공, 컴퓨터와 연결 및 다양한 프로그램 세탁소, 식당, 살롱 컴퓨터 세일, 설치, 트레이닝, 아프트 서비스 제공. 무료 방문 상담해 드립니다.

Email : mchae@dependableusa.com web : dependableusa.com

디펜더블 컴퓨터 781.858.1155, 781.727.4325

USGTF 골프 티칭프로 자격증 시험

대상 : 뉴잉글랜드 지역 거주인
 일정 : 매년 7월
 장소 : 보스톤
 문의 : 최성조 마스터 프로(시험감독관)
 전화 857.600.6755
 이메일: sj.usgtf@gmail.com

857.600.6755 **USGTF**
 마스터 US 월드 티칭 프로

보스톤 봉사회

의료보험안내
 무료세금보고

Tel. 508-740-9188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을 받아 보는 방법

보스톤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종이 신문 번갈아 매 격주로 발간됩니다. 보스톤 코리아 디지털 신문은 매주 금요일 2만명의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되고 있으며, 평균 5천명이 넘는 독자들이 이메일을 열어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디지털 신문을 받아보기 위해서는 첫째,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이란 제목으로 이메일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매 격주 PDF 지면으로 이메일을 통해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신청 방법

1. 보스톤코리아닷컴에 회원가입을 신청해주세요.
2. editor@bostonkorea.com에 <보스톤코리아 구독>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명덕, Ph.D., Financial Planner
& Registered Investment Adviser (RIA)
Copyrighted, 영민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All rights reserved
www.billionsfinance.com
248-974-4212



영민 엄마와 함께하는 재정계획 (811) ETF(Exchange Traded Fund) 투자

주식 투자의 시작은 대부분 개별적인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한다. 주식 대박을 은근히 기대하며 유망한 기업을 열심히 찾아본다. 필자 역시 이것저것 한껏 머리 굴리(?)하며 기업을 선택해서 투자했었다. 어떤 종목은 놀라운 성과를 냈지만, 이것 역시 단지 운(Luck)이 좋았던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개별적인 투자에서 뮤추얼 펀드 투자로 전환된 것이다.

자유롭게 움직이는 주식시장(Random Walk Down Wall Street)이란 책이 1973년에 출판되었다. 책의 저자는 프린스턴 대학의 버튼 맥키엘(Burton Malkiel) 교수이다. 책이 다소 두껍지만, 책의 요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식 전문가가 주식을 선별하는 것이나 원숭이가 주식 선별하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반세기 전에 언급했다.

금융시장 50여 년 전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다. 직장인의 401(K) 플랜도 없었고 개인연금투자(IRA) 플랜도 없

었다. 주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던 시대였다. 이때에는 회사의 경영진을 직접 만나서 새로운 제품, 기업의 가치(Intrinsic Value), 재무제표, 등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 결정하는데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맥키엘 교수는 주식 전문가나 원숭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폭탄 선언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필자는 뮤추얼 펀드에서 인덱스 펀드 투자로 집중된다.

금융업계에 새로운 투자 종목인 ETF 투자가 1993년 주식시장에 출시되었다. 필자 역시 인덱스 펀드에서 ETF 투자로 전환한 것은 당연하다. 작년 단 한 해 동안 ETF에 투자된 금액이 무려 1 trillion (A Record-Shattering \$1 Trillion Poured Into ETFs This Year, Jack Pitcher, WSJ, Dec. 30, 2024) 이고, ETF 시장은 매년 성장하여 현재 약 \$10.59 trillion이나 된다.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이유는 ETF 투자의 유일한 점이 세월이 갈수록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식 투자하는 데 좋은 점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

보자.

분명한 투자 방향: 뮤추얼 펀드는 펀드 매니저에 의해서 투자종목이 결정된다. 한 예로 어떤 뮤추얼 펀드의 투자 방향은 외국 기업에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펀드의 수익률이 하락하고 고전한다. 같은 시기 미국 기업의 주식은 상승하는 분위기이다. 펀드 매니저는 떨어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자산의 일부를 국내 기업으로 투자한다. 이렇게 변형된 투자 방향으로 일반 투자자는 분산투자를 기본으로 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투자가 어디에 어떻게 투자되어 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은 경비: 뮤추얼 펀드에는 재정설계사가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있는데 4% 이상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부과되는 투자비용은 재정 문서에 나오지도 않고 재정설계자도 말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투자자 각자가 숨어있는 비용을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어떤 투자자는 투자비용이 부과되면 그만한 값어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

지만, 맞는 말은 아니다.

ETF는 수수료가 일반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 경비도 매우 저렴하다. 벵가드 S&P 500 ETF의 경비는 단 0.03%이다. 투자 \$10,000에 부과되는 비용이 한 해에 단 \$3이라는 뜻이다. 남에게 한 푼이라도 주지 않으면 그만큼 나의 호주머니에 남아 있는 것이다. '싼 것이 비지떡'이란 속담은 금융업계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 효과: 뮤추얼 펀드는 투자자가 사고 팔지 않아도 매년 세금을 내야 한다. 뮤추얼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을 끊임없이 사고팔기 때문이다. 이것을 턴오버(Turnover)라고 한다. ETF는 사고파는 횟수가 매우 적기에 발생하는 세금이 거의 없다.

오래전부터 ETF를 이용해서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을 추천했다.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필자의 개인 자산이나 모든 고객의 자산도 ETF에 투자하고 있다.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 심사숙고하시기를 바란다.

보스톤코리아 이제 스마트폰으로 보세요!

보스톤코리아 스마트폰 홈화면에 바로가기 추가 하기

보스톤코리아를 핸드폰 홈화면에 바로가기를 두고 언제든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

아이폰

- 1 아이폰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화면을 클릭하면 화면 밑부분에 <저장하기> 버튼이 형성됩니다.
- 3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저장하기 화면을 위로 끌어 올리면 <홈화면에 추가>를 선택합니다.
- 4 보스톤코리아 아이콘에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안드로이드폰

- 1 브라우저에서 www.bostonkorea.com으로 보스톤코리아에 접속합니다.
- 2 우측 상단 세로 점 세개를 터치합니다.
- 3 우측에 열리는 메뉴에서 홈화면에 추가를 터치합니다.
- 4 바로가기 아이콘이 홈 화면에 추가됩니다.
- 5 다시 메인화면을 열면 보스톤코리아아이콘이 보입니다.



보스톤코리아
www.bostonkorea.com


 KOREAN-AMERICAN
 CITIZENS LEAGUE
 OF NEW ENGLAND
 DISCOVER THE  OF THE
 Korean-American Community

PRESENTS

5th ANNUAL ROLLING LUNAR NEW YEAR

Free Community Celebration

FEATURING



FEB 23, 2025 | 11:30AM- 1:30PM

WITH LIVE PERFORMANCES, KOREAN FOOD, GAMES,
 DRUMMERS, LION DANCE AND MORE...

OPEN TO THE PUBLIC. SEATING IS LIMITED RSVP REQUIRED

Arts at the Armory 191 Highland Avenue Somerville, MA 02143



Featured artist on Jennifer Hudson's Christmas playlist
Ye Pan



Aaron Yu



Korean Nanta Drum Team



SPONSORED BY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백영주의 부동산 따라잡기
Direct (617)-921-6979
E-mail: clarapaik@ownnewengland.com



렌트비가 저렴한 미국 도시들 10 곳

지난 칼럼에서는 미국에서 집값(매매)이 저렴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해서 다뤘다.

이번 칼럼에서는 렌트비가 저렴한 도시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미국 집값도 렌트비도 최고인 이시기에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할까가 모든 사람들에게 고민이다. 특히 대학을 갓 졸업한 세대에게는 정말 힘든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드리고자 렌트가 저렴한 미국 도시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다.

10. Kansas City, Missouri - 미조리주 하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곳은 St. Louis에 있는 워싱턴 대학일 것이다. Kansas City는 미조리주에서도 서쪽에 있는 도시이다. 렌트비 중간 가격은 월 \$1,412이다. 매년 6.3% 정도에 렌트비가 올랐다. Kansas City는 뉴욕 같은 대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즐길만한 모든 문화생활과 스포츠팀이 있는 도시이다.

9. Pittsburgh, Pennsylvania - 서쪽에 있는 펜실베이니아주에 도시이다. 렌트 중간값은 \$1,401이다. 이 도시도 마찬가지로 뉴욕 같은 대 도시는 아니지만 꽤 변화한 도시이다. 매년 4.8% 정도 렌트비가 오르고 있다. 3개에 프

로 스포츠팀도 있고 역사에 대한 프라이드가 많은 도시이다.

8. Detroit, Michigan - 자동차에 도시라고 불리는 곳이다. 중간 렌트 가격은 \$1,381이다. 매년 4% 정도에 렌트비가 오른다. 80년대 만해도 일분차들이 많이 들어 올 것이라는걸 몰랐을 때는 이 도시가 한 없이 클 줄 알았다. 미국차 인기가 떨어지는 바람에 좀 후진된 도시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다른 분야도 많이 발달한 도시이다.

7. Birmingham, Alabama - 중간 렌트비는 \$1,376이다. 역사가 깊은 도시이다. 남쪽에서 인권운동이 시작된 곳이다. 한인들에게는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도시이다.

6. Cleveland, Ohio - 중간 렌트비는 \$1,363이다. 클리블랜드도 프로 스포츠팀이 3개나 되는 도시이다. 암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클리블랜드 클리닉도 여기에 있다. 미국 중심에 위치한 이곳은 아직까지는 저렴한 하우스 시장 마켓에 속하지만 향후 발전 가능성이 높아 하우스 마켓에 으뜸세가 가장 두드러질 곳으로 보인다.

5. Louisville, Kentucky - Louisville는 켄터키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Known for

food lovers" 라는 문장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맛있는 식당들이 많다. UPS 본사가 여기에 있다. 중간 렌트 가격은 \$1,353이다.

4. St. Louis, Missouri - Washington University가 있는 그곳이다. 중간 렌트 가격은 \$1,343이다. 도시에 크기나 분위기 또한 모든 상황을 보았을때 이 가격에 집을 구할수 있다면 첫 직장으로 이곳으로 이주하는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3. Oklahoma City, Oklahoma - 가장 빨리 성장하는 도시중에 하나이다. 에너지 job market과 에로 스페이스 직장들이 많다. 중간 렌트 가격은 \$1,329이다. 텍사스주가 많이 발전해서 집값이 지난 5년동안 제일 많이 올랐는데 달라스에서 가까운 이곳도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2. Milwaukee, Wisconsin - 미시간 강을 끼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다. 그리고 맥주가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다. 중간 렌트비는 \$1,311이다. 큰 도시로 발전 가능성이 제일 많은 도시이다. 교육과 문화 쪽 발전이 벌써 많이 진전되고 있다.

1. Buffalo, New York - 뉴욕주 북서쪽에 있는 도시이다. 중간 렌트비가 \$1,282이다.

아마도 미국에서 제일 눈이 많이 오는 도시가 아닐까 싶다. 2025년에 가장 렌트비가 저렴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뽑혔다.

전국(National) 렌트 중간 가격은 올해 \$2,000이다. 위에서 알아본 10개의 도시의 렌트 가격은 미국안에서 매우 저렴하고 환경이 좋은 곳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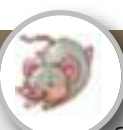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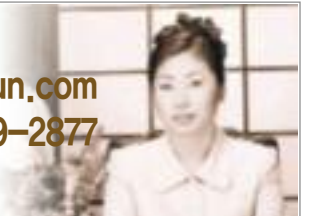
본인이나 자녀들이 직장 때문에 이주를 해야 할 경우에는 이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란다

백영주 (Clara Paik)
Executive Manager
Berkshire Hathaway N.E. Prime Properties
Realtor, ABR., GRI, CCIM.
Multi-Million Dollar Sales Club, Top 25 Individual of 2006, 2007, 2008, Re/Max New England, Association of Board of Realtors, Massachusetts Association of Realtors, Boston Real Estate Board.
Office 781-259-4989
Fax 781-259-4959
Cell 617-921-6979

2월 16일 - 2월 22일

재미로 보는 주간 운세 지윤철학원

www.askjiyun.com
213-739-28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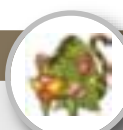
쥐띠 | 내일의 재산은 건강

● 운수: 일이 지연되고 짜증이 나더라도 이미지 관리가 필요합니다. 여유 있는 마음이 바로 성공의 열쇠가 되어줍니다. ● 금전: 내일의 재산은 건강입니다. 재물을 얻고 건강을 잃는다면 부질없는 것이니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도록 하세요. ● 애정: 평소보다 다른 사람의 말에 예민하게 반응하기 쉽습니다. 편안한 관계를 지속하려면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96, 84, 72, 60, 48, 36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소띠 |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 운수: 두려워하지 말고 경험을 잘 살리면 승산이 있습니다.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리니 자신감으로 대처하도록 하세요. ● 금전: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가는 운세입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재물과 명예가 함께 들어올 것입니다. ● 애정: 가까운 거리에 당신에게 크게 관심이 있는 상대가 있습니다. 주위를 잘 돌아보세요. 97, 85, 73, 61, 49, 37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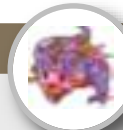
범띠 |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 운수: 항상 문제는 사소한 곳에서 비롯되는 법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점검하고 또 점검하도록 하세요. ● 금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같이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에 과욕을 부리지 말고 침착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세요. ● 애정: 내 맘대로 상대를 휘어잡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리한 것 같아도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98, 86, 74, 62, 50, 38년생은 18,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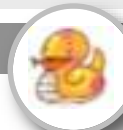
토끼띠 | 잠시 관망하도록

● 운수: 잠시 관망하도록 하세요.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해서 혼돈이 생깁니다. ● 금전: 소문난 잔치에 먹을 없다고 하듯이 계획은 크나 실질적으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적었습니다. 큰 실속이 없이 지나갑니다. ● 애정: 주위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믿음만 강하다면 그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리 쉽게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99, 87, 75, 63, 51, 39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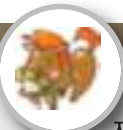
용띠 | 적당히 선을 그어야

● 운수: 신중해야 할 상황과 급하게 서둘러야 할 상황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납니다. 수면 부족이 제일 큰 적일 때입니다. ● 금전: 책임질 수 없고 실행력이 없는 말뿐인 약속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금전 문제에 있어 신용을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애정: 적당히 선을 그어야 합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는 오래갈 수 있는 사이가 되기 어렵겠습니다. 00, 88, 76, 64, 52, 40년생은 17, 20일 길일, 19, 22일 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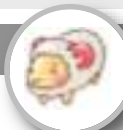
뱀띠 | 이심전심이니

● 운수: 계획하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않도록 하세요.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밀어붙이세요. ● 금전: 현상 유지에 만족하도록 하세요. 크게 손해 보는 시기는 아니지만 크게 이익을 기대하기도 힘든 시기라겠습니다. ● 애정: 이심전심이니 서로 마음이 잘 통합니다. 적극적으로 밀고 나가면 자신의 감정이 잘 전달될 것입니다. 01, 89, 77, 65, 53, 41년생은 18, 19일 길일, 20, 22일 주의.



말띠 | 희망을 품도록

● 운수: 한때는 어려움이 부딪혀서 절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 회복할 수 있으니 희망을 품도록 하세요. ● 금전: 돈 관리에 특히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큰 거래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 애정: 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조용히 보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구태여 확인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히 알게 됩니다. 02, 90, 78, 66, 54, 42년생은 19, 22일 길일, 18, 21일 주의.



양띠 |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 운수: 자신감을 얻고 효과적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가까이 물심양면으로 도움 주는 귀인이 있습니다. ● 금전: 남을 포용하는 따사로운 마음을 내야 자신에게 많은 이로움이 돌아옵니다.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애정: 멀리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찾아오는 사람이 있겠습니다. 심신이 편안해지니 마음의 여유도 생깁니다. 03, 91, 79, 67, 55, 43년생은 17, 18일 길일, 21, 22일 주의.



원숭이띠 |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 운수: 주위 사람이 협조자가 되어주니 일의 성취가 쉬울 것입니다. 머리가 맑아지니 쓸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 금전: 좋은 문서도 손에 쥐게 되는 운이기도 하니 발전의 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전운도 나아집니다. ● 애정: 상대방에 대한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매력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04, 92, 80, 68, 56, 44년생은 16, 22일 길일, 17, 19일 주의.



닭띠 | 자신감을 가지고

● 운수: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니 더 반가울 것입니다. 서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미래를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 금전: 가까운 친구가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스스로 찾던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든지 자신에게 득이 되는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 애정: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가 보세요. 주위에서만 맴돌다가는 좋은 상대를 놓칠 수 있습니다. 93, 81, 69, 57, 45, 33년생은 16, 20일 길일, 18, 21일 주의.



개띠 | 정확하게 해주어야

● 운수: 법적인 문제, 문서, 서류 처리 등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성급하게 처리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 검토하고 분석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금전: 본업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수입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애정: 쉽게 마음의 빗장을 열지 마세요. 정주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94, 82, 70, 58, 46, 34년생은 18, 20일 길일, 16, 19일 주의.



돼지띠 |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 운수: 누구든지 관대한 태도로 대해야 합니다. 특히 진정한 감자라면 약자를 끌어안아 주는 것이 맞습니다. ● 금전: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크나큰 변화가 없는 시기이지만 노력만큼의 재물이 늘 것입니다. ● 애정: 마음은 있으나 적당한 계기가 마련되지 않아 망설이고 있군요.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진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95, 83, 71, 59, 47, 35년생은 19, 22일 길일, 17, 20일 주의.

구인

광고 문의 617-254-4654

매사추세츠주 웰즐리 (Wellesley, Ma) 에서 매주 일요일 아침 부터 저녁까지 치매에 걸린 연로하신 아버지를 도와주실 유 경험자를 찾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joint@sent.com 으로 문의해 주세요.

Saugus 에 있는 chois health spa 에서 카운터겸 Receptionist 와 청소 하실분 구합니다. TEL: 401 487 3004 . email : choishealthspa@gmail.com

세탁소 매매
주인 은퇴, 연매상 30만불
TEL. 978-539-8152

부동산 매매

광고 문의 617-254-4654

형제 떡집 매매합니다.
Tel. 978-343-6080, 978-407-9029

강풀 세계관 잇는 노정의의 '마녀'... "차별화보다 원작 존중"

(서울=연합뉴스) 오명언 기자 = "원작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작품에 임했습니다. 원작에 담긴 주제와 맥락을 놓쳐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드라마를 만들었죠." (김태균 감독)

타고난 이야기꾼으로 꼽히는 강풀 작가의 독특한 세계관을 잇는 드라마 '마녀'가 오는 15일 베일을 벗는다.

채널A 드라마 '마녀' 연출을 맡은 김태균 감독은 11일 서울 구로구 디큐브시티 더 세인트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원작과 큰 차별점을 두려고 하지는 않았다"며 "웹툰 속 컷 사이의 공백을 메꿔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작업했다"고 설명했다.

이 드라마는 누적 조회수 1억3천만 건을 기록한 강 작가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다. 자신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다치거나 죽으면서 마녀라 불리게 된 여자와 그를 소문으로부터 구해주려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다.

디즈나+를 통해 이미 공개된 시리즈 '무빙', '조명가게'와 달리 강 작가가 극본 작업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김 감독은 "세상에 없는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창작자로서 끌렸던 것 같다"며 "누군가에게는 인생 작품이 될 수 있을 만큼 울림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전작으로 영화 '암수살인'을 만들었던 김 감독은 드라마의 장르적 쾌감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는 숨겨진 진실을 집요하게 찾아내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며 "긴장감을 쌓아 올려서 몰입감을 만들어내는 데 굉장한 에너지를 쏟았다"고 말했다.

마녀라고 불리는 여자 박미정 역은 노정의가, 그런 미정을 사랑하게 되는 이동진 역에는 전역 후 첫 작품으로 복귀



한 박진영이 나섰다.

노정의는 "박미정은 세상과 단절한 채 살아가는 소녀"라며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다른 캐릭터들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정이 느끼는 외로움을 더 극대화해 전달하기 위해서 눈빛 연기에 특히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박진영은 "강풀 작가님의 이야기에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웹툰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잘 알고 있다"며 "싱크로율을 높이고 감독님과 꾸준히 상의하며 촬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진이 사건을 피해쳐나가는 과정이 중심이 되는 이야기여서 수사물 같기도 하고 로맨스 같기도 한 오묘한 매력의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coup@yna.co.kr

동영상 광고 전문제작 유튜브 / TV / 모바일

Nabis Studio
6177565744
ozic@hotmail.com
175 Harvard Ave, Allston, MA 02134
이벤트사진, 여권사진, 그래픽디자인 서비스

지드래곤, 3월 고양서 8년만 월드투어...신곡 무대 선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가수 지드래곤이 3월 고양에서 월드투어 콘서트를 개최하고 팬들을 만난다.

쿠팡플레이는 지드래곤이 3월 29~30일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쿠팡플레이와 함께하는 지드래곤 2025 월드투어 위버멘쉬 인 코리아'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드래곤이 단독 공연을 여는 것은 2017년 월드투어 이후 약 8년 만이다. 지드래곤은 2017년 당시 총 36회 공연으로 관객 6만여명을 동원했다.

이번 공연에서는 '파워

'(POWER), '홈 스위트 홈'(HOME SWEET HOME)을 비롯해 이달 발매하는 정규 3집 '위버멘쉬'(Ubermensch) 수록곡 '투 배드'(TOO BAD), '드라마'(DRAMA) 등을 들려준다.

쿠팡플레이는 월드투어 한국 콘서트의 프레스팅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으며 티켓 예매 등을 담당한다.

콘서트 티켓은 쿠팡플레이 모바일 앱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14일 쿠팡플레이 공식 사이트에서 공개한다.

cjs@yna.co.kr



신영의 세상 스케치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965회

시인 신영은 월간[문학21]로 등단, 한국[전통문화/전통춤] 알리기 역할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skyboston@hanmail.net

<라디오코리아 뉴욕> '신영 선교사의 하늘스케치' 녹화를 마치고 와서...

방송국에 오랜만에 찾아갔다. 지난 10월 말에 한국 10도 전도를 시작으로 필리핀 선교를 다녀오고, <국제언론인클럽> 제13회 글로벌 자랑스러운 세계인 13인 대상 '특별 수상(뉴욕일보 칼럼니스트)' 을 받았으며, 여섯 번째 산문집 출판을 끝으로 2달 여 만에 1월 초 뉴욕에 도착했다. 긴 여정이었다. 40여 년이 다 되도록 미국에 살면서 한국을 방문하며 2달 여 시간을 머문 적이 없었다. 보통 1달여 시간을 보내고 돌아오곤 했다. 지난 2024년 긴 방문은 '환갑' 을 자축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신영 선교사의 하늘스케치> 방송을 거의 석 달을 쉬었다. 방송을 하다 보면 방송이 나오는 시간보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욱 감사한 시간임을 깨닫는다.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시간과 찬양을 듣는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카이로스)' 이기에 그러하다. 사역을 하느라 바쁘기도 하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족한 저를 써 주시니 감사하다' 고 고백을 올려드린다. 내 멧에 겨워 살아왔던 지난 날들

을 돌아보며 단 한 순간도 나 혼자이지 않았음을 깨닫기에 오늘의 이 시간은 참으로 귀하다.

뉴욕에 도착해 기도로 준비했던 사역(뉴욕선교센터(New York Mission Center))에 집중적인 시간을 보냈다. 하나님은 기도 중 마음의 것들을 입으로 '선포' 하게 하신다. 그렇게 일정들을 정리하고 발표하고 마음의 짐을 갖게 되었다. 방송국의 지인으로부터 인사를 듣는다. 한국에 잘 다녀왔냐고 말이다. 방송국으로 <신영 선교사의 하늘스케치> 를 찾는 청취자 분들의 전화가 여러 차례 걸려왔다고 내게 전해주신다. 참으로 감사했다. 갑자기 마음이 몽클해졌다. 추운 날 씨에 다들 잘 계시려나 싶은 어른 권사님들이 떠올랐다.

방송은 내게도 참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다. 어쩌면 사람마다 마음에 드는 옷이 있을 것이다. 그 옷을 입고 거울을 보며 흡족해하는 그런 느낌 말이다. 아마도 방송은 내게 그런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싶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이고 아

주 특별한 선물인 것이다. 글쓰기와 방송 남들은 글쓰기가 힘들다고 하지만, 나는 편안한 마음으로 욕심부리지 않고 글을 쓰는 편이다. 일상에서의 소소한 일들, 삶에서의 평범한 이야기들을 마주하듯 그렇게 써 내려가는 것이 이유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자연스러움이란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억지로 꾸미지 않아 어색한 데가 없다' 는 뜻이다. 이처럼 물 흐르듯이 일부러 꾸미거나 남을 의식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닐까. 내게 맞는 옷이 제일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것처럼 말이다. 그럴 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더라도 편안하게 느끼게 되는 것이리라.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옷을 걸치면 나 자신도 무엇인가 어색할 뿐만 아니라 바라보는 상대도 불편하게 느끼게 된다. 자연들을 보면 알게 된다. 그들은 그저 제 모습대로 때를 따라 순응하며 제 자리에 있는 것이다.

오랜만에 <라디오코리아 뉴욕/FM87.7 or FM94.7 HD3> 방송국에 녹화를 위해 다녀왔다. 마음이 설레었다. 목소리로 들려주는 라디오 방송이지만, 설교방송을 준비하며 청

취자분들의 모습이 스쳐 지나다.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나의 가슴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영상들은 무엇일까. 순간 또 기도를 올려드린다. 부족한 나를 이렇게 써 주시니 또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을 한다. 이 방송을 듣는 그 누군가에게 마음에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말이다.

'신영 선교사의 하늘스케치' 방송을 듣는 청취자 분들 중에도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들이 분명 있음을 깨닫는다. 하나님은 나를 왜 여기에 세우셨을까. 무엇인가 분명 뜻 가운데 있음을 이미 안 까닭에 믿음보다는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한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하신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신다고 하신다. 그 약속을 나는 믿는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그분의 약속을 나는 믿는다.



이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담객설閑談客說: 곱게 보면



김화옥
보스톤코리아 칼럼니스트

는 울리지 말라는 부탁이었고,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여차하면 자신의 이름은 빼라는 위협도 던졌었다. 불편한 마음은 사뭇 이해할 수 있겠다. 카톡사절謝絶이라 써 붙여야 할판 인게다.

다른 카톡을 받았다. 마음이 아름다우니 세상도 아름답다고 했다. 시는 시일텐데 시조처럼 읽힌다. 한국 시조時調처럼 고쳐 읽는다.

밋다고 보면 잡초 아닌 풀이 없고

곱다고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을지니

그대는 자신을 꽃으로 보시게 나

말은 이어진다. 나이가 들어 가면 눈이 침침해 지는데, 이유가 그럴듯 하다. 필요없는 작은 것은 보지 말 것이며, 필요한 큰 것만 보라는 뜻이라는 거다.

나이가 들면서 눈이 침침한 것은

필요치 않은 것은 보지 말라는 뜻이요

필요한 것만을 살펴보아 헤아릴 지니.

이젠 보는것도 그러하고 듣는 것도 그렇그렇하다. 눈은 침침해 진지 오래전이고, 듣는 것 역시 만만치 않다. 그러나 나이 덕분인가, 세월 덕분인가. 작은 활자체는 아예 보이지 않고, 작은 소리는 쉬

이 들리지 않는다. 이젠 가려 듣고 볼수있는 나이가 되었나 보다.

정녕 그러 할게다. 내게 하는 부탁인데, 아름다운 눈으로 세상을 보라. 부디 세상을 예쁜 눈으로 보길 원하는 거다. 아니면 차라리 눈을 감거나, 들은 걸 흘려 보내든지. 세상에 볼것 안볼것 모두 봐왔기 때문일텐데.

지난 가을 단풍은 꼭 보고 싶었다. 더불어 가을 바람소리도 제대로 듣고 싶었다. 그런데 시기를 놓쳤다. 이 겨울엔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소리는 들을 수있을 건가? 아니 새봄엔 세상만사를 아름답게 볼 수있을 것인가.

귀있는자는 들을 지어다. (마태 11:15)

오래전 한국에서 이다. 양옥집 녹색철문엔 '신문사절' 이란 글귀가 붙어 있었고는 했다. 보일러수리파워의 광고스틱커와 더불어 큼직하게 써서 붙이곤 했던 거다.

무작정 던져넣는 조간신문에 대한 구독자의 정중??한 거절이었던 바.

카톡을 받았다. 그룹채팅방 카톡인데, 불평이었다. 정치이야기



한차원 높은 고국 방문 건강검진...

휴람 의료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 휴람건강검진 ◆

시설, 장비, 퀄리티, 검사항목, 서비스, 가격 등
해외동포분들을 위한 '비교우위' 프로그램입니다!!!

휴람은 상담 - 예약 - 검진진행 - 사후관리를 보호자 역할로서 도와드립니다.



휴람 해외동포 특별가 프로그램

◀ 종합검진 기본 항목 ▶

- | | |
|---------------------------------|----------------------------|
| 1. 이학적검사(신체계측, 비만도, 시력, 안압, 혈압) | 7. 체지방검사 |
| 2. 청력검사(순음청력검사) | 8. 부인과검사(자궁경부암, 유방특수촬영) |
| 3. 혈액검사(종합혈액검사 70여가지) | 9. 소화기검사(수면 위내시경) |
| 4. 암표지자검사 | 10. 복부초음파검사(간장, 췌장, 복부장기등) |
| 5. 심폐기능검사(흉부X-RAY, EKG, 노력성폐활량) | 11. 문진 및 전문의 상담 |
| 6. 요검사 | |

휴람 당일종합검진

소요시간: 오전 4시간 **49만원 ~**

- 기본항목 + [남] 흉부(폐)CT, 전립선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 기본항목 + [여] 갑상선초음파, 자궁초음파, 유방초음파, 골밀도, 비타민D검사

휴람 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69만원 ~**

- 휴람 당일종합검진 + 수면 대장내시경+ 숙박(1인실)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120만원 ~**

- 휴람 숙박종합검진 + 뇌MRA, 심장CT

휴람 VIP종합검진

소요시간: 당일 오후 2시 ~ 명일 12시경 퇴원 **240만원 ~**

- 휴람 정밀숙박종합검진 + 뇌MRI, 심장초음파, 복부조영CT, 흉부(폐)CT
갑상선초음파, 경동맥초음파 +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VVIP종합검진

소요시간: 2일간 진행(오전 검사 시행) **437만원 ~**

- 휴람 VIP종합검진 + PET-CT(전신암정밀검사), 복부비만CT, 관상동맥CT
뇌심장정밀혈액검사 + 2일간 픽업서비스(서울지역만 가능)

휴람 의료 네트워크 병원

상담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 | | |
|--------------|-------------|
| 중앙대학교병원(흑석역) | H+양지병원(신림역) |
| 세란병원(독립문역) | 안산한도병원(선부역) |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해외동포 특별가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기 검진은 병원에 따라 검진 항목 및 비용 및 서비스등이 상이 합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카카오톡 : 010-3469-4040(ID: huramkorea)
이메일 : huram@huram.kr
홈페이지 : www.huramkorea.com

보스톤코리아 휴람 네트워크와 제휴한 세란병원

이 컬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발 감각 둔해지는 당뇨병 환자, 저온화상·동상 취약



이번 주 휴람 의료정보에서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에 대해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장 준희 부장의 도움을 받아 자세히 알아보 고자 한다.

당뇨병을 앓으면 혈액 순환이 잘 되지 않고 감각이 둔해지며 세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 당뇨병은 우리 몸에 여러 합병증을 야기한다. ‘당뇨발’로 잘 알려진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자칫하다가는 절단의 위험까지 일으킨다. 혈액의 당 수치가 높으면 신경세포가 죽어 감각이 무뎠고, 상처도 잘 아물지 않게 되는데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곳이 발끝이다.

많은 당뇨발은 사소한 상처에서 비롯된다. 발톱이 파고 들어가는 상처, 발톱을 깎다가 생기는 상처, 짝 끼는 신발로 인한 물집과 굳은살, 뜨거운 목욕탕에서 생긴 수포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당뇨 환자의 발은 가벼운 상처도 궤양이나 괴저 등의 심각한 합병증으로 급속히 진행할 수 있다.

겨울에는 추운 날씨 탓에 혈관이 위축되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겨 감염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감각이 무뎠기 때문에 난로와 핫팩, 족욕과 같은 온열기구에 의한 저온화상이 생길 위험도 높아진다.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병이나 열이 나는 패드는 피하는 것이 좋다. 화상을 입어도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만 추운 날에는 동상을 피하기 위해 발을 따뜻하게 유지해야 한다.

신경이 완전히 파괴되면 발의 감각이 둔해진다. 발에 쉽게 상처가 나고, 다치거나 고름이 잡혀도 본인은 아픈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은 경우가 통증보다는 상처가 커지고 피나 진물이 양말에 묻어 나오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된다. 감각이 둔해진 환자는 추운 환경에서 발이 손상돼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자주 발이 부으며 피부에 딱이 나지 않아 건조해지고 갈라져서 상처가 쉽게 난다.

따라서 당뇨병이 있다면 발의 감각스러운 변화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의 색이 붉거나 검게 변하거나 수포, 궤양 등 사소한 변화가 생기면 병원을 찾아야 한다. 겨울철 당뇨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을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고 통풍이 잘되는 양말과 신발을 착용해야 한다. 또 피부 보습제를 사용해 발의 건조와 갈라짐을 예방해야 한다.

당뇨병성 족부 질환의 보존적 치료는 드레싱을 해 조직 및 혈관의 생성을 돕는 것이다. 필요

하다면 혈관 확장제 등을 이용해 상처의 치유 과정을 촉진한다. 예전에는 심하게 괴사한 당뇨발은 절단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혈관 상태에 따라 성공적으로 재건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조기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자각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당뇨의 무서운 합병증 중 하나가 당뇨발이다. 당뇨 환자 중 많게는 10% 가까이에서 족부 궤양이 발생하고 이 중 70% 정도는 1년안에 호전하지만 5% 정도는 절단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정기적인 내과 진료를 통해 혈당 뿐 아니라 혈압 및 고지혈증을 적절하게 조절해야 한다.

휴람 의료네트워크 세란병원 내과장준희 부장은 “통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상처가 생겨도 그냥 지나다가 괴사로 진행된 다음에야 치료를 받으러 오는 경우가 많다”며 “발등뿐 아니라 발바닥, 발가락 사이 등을 면밀히 관찰하고 물집이나 붉어진 곳, 피가 고인 곳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희 부장은 “일단 발에 상처나 감염이 생기면 건강한 사람과는 달리 잘 치료가 되지 않고, 점점 상부로 번지게 되는데 초기에 치료 시기를 놓치면 급속히 진행된다”며 “환자들은 당뇨병으로 정상적으로 있어야 할 감각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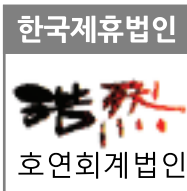
무뎠어 외부 상처로부터 발이 보호되지 않는 상태임을 인식해야 한다. 발톱을 깎을 때 매우 조심해야 하며 티눈이나 굳은살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발 감각 둔해지는 당뇨병 환자, 저온화상·동상 취약” 및 그 밖의 휴람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 시다면 휴람 해외의료사업부 김 수남팀장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휴람이 상담부터 병원선정 - 진료예약 - 치료 - 사후관리까지 보호자로서 도와드릴 것입니다.

- Kakao ID : huramkorea
- 미국, 캐나다 무료 전화(Call Free) : 1-844-DO-HURAM(1-844-364-8726)
- 직통전화 : 070-4141-4040 / 010-3469-4040

M이명원 회계사 MW LEE, CPA P.C.



이명원 회계사

한국 공인 회계사
미국 공인 회계사

MW LEE, CPA P.C. 대표
호연회계법인 국제조세 본부장

(전) 삼일회계법인 근무
(전) 한국 공인회계사회 세법 강사
(전) Rucci, Bardaro & Barrett P.C. 근무

“한국과 미국의 세무를 한번에!”



- 한국과 미국의 개인 세금보고 / FBAR / FATCA 보고
- 한국과 미국의 법인 세금보고
- 양도, 상속, 증여 절세 대책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미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 개인 및 법인의 한국 지사 설립 / 관리
- 한국과 미국의 본사 보고서 작성
- 한국과 미국의 회계기준에 의한 회계감사 보고서 / 검토 보고서 작성

617.455.8073
mw@mwleecpa.com
1318 Beacon St. Ste#4,
Brookline, MA 02446



휴람 - 성형외과

해외 동포 특별가 성형 패키지



성형 패키지 특별가 이벤트

- 눈꺼풀 + 눈 밑 처짐 360 만원 콧대 + 코끝 350 만원
- 얼굴 처짐(목 처짐 포함) 700 만원 지방흡입(복부) 500 만원
- 가슴(보형물에 따라 가격 상이) 600~1,000 만원

* 상담 결과에 따라 수술 방법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휴람을 통한 예약 시 이벤트 혜택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술 내용에 따라 휴람에서는 숙박 혜택 및 추가 서비스도 제공해드립니다.



해외의료사업팀장
김수남

617.949.1766

010-3469-4040 / ID : huramkorea
huram@haram.kr / www.huramkorea.com





106년의 독립운동



삼일절 기념식

일시 2025년 3월 1일 오후 2시

장소 : 북부 보스톤 교회
224 Lowell st . Andover. MA
01810



- 주최
- 매사추세츠 한인회
 - 뉴 햄프셔 한인회
 - 로드 아일랜드 한인회
 - 주 보스톤 총 영사관

- 협찬
- 북부 보스톤 교회
 - 보스톤 코리아





FROM JOSEON DYNASTY TO SALEM

Night of Fundraising for the
Opening of **Yu Kil-Chun Gallery**
of Korean Art and Culture

April 5, 2025 | 6 pm

NATICK ELKS LODGE | 95 SPEEN STREET | NATICK, MA 01760

조선에서 세일럼까지
유길준 갤러리
오픈 후원자의 밤
한국관

P | E | M
Peabody Essex Museum

Artist in Korea, Fan (taegekseon) (detail), 18th century. Paper, lacquer, and wood. Gift of Edward Sylvester Morse, about 1900. E4439. Artist in Korea, Rank badge with two cranes and clouds for a civil official (hyungbae) (detail), 19th century, Embroidered silk. Gift of Gustavus Goward, 1899. E9785. Artist in Seoul, Korea, Bridal robe (hwarot) (detail), late 18th century. Silk, paper, cotton, wool, and metallic thread. Gift, 1927. E20190.F. Artists in Korea, Screen painting, 19th century. Silk, wood and paper. Museum Purchase, made possible by W.C. Endicott and George A. Peabody, 1927. E20262.A. 태극선 (부분), 18세기. 종이, 옷칠, 나무. 1900년경 Edward Sylvester Morse 기증. E4439. 쌍학홍배 (부분), 19세기. 비단에 자수. 1899년 Gustavus Goward 기증. E9785. 활옷 (부분), 18세기 후반. 비단에 자수, 종이, 면, 양모, 금속. 1927년 기증. E20190.F. 평안감사 환영도 (부분), 19세기. 비단에 채색. 1927년 W.C. Endicott와 George A. Peabody의 후원으로 박물관 구입. E20262.A.



UNI 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Seminar
은퇴 | 자산관리 | 상속

- BOSTON -

3/7/2025 (Fri.) 7-9 (pm)
미국에서의 은퇴 준비

3/8/2025 (Sat.) 10~12 (am)
자산관리 & 상속
(한국 vs. 미국)

The Westin Waltham-Boston
(Lincoln Room)
70 Third Ave. Waltham, MA 02451

UNIOffice.ma@gmail.com
617-468-6446

UNI Financial
Worldwide Marketing

보스톤코리아 인터넷 신문, 이제 카카오톡 채널로

보스톤코리아 +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 해주세요

보스톤코리아 신문의 이메일 발송은 기술적인 문제와 Gmail의 정책변화로 당분간 발송이 중단됩니다. 보스톤코리아는 이메일 발송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신문 전달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카카오톡 채널로 신문과 각종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의 방법으로 <카카오 채널 친구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친구신청 하는 방법

1. 바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읽으신 후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보스톤코리아 카카오톡 채널로 이동합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노란 버튼의 카카오톡 채널 친구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채널추가 버튼이 중간에 나타납니다.
3. 채널추가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 보스톤코리아 신문과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